

# 2·28의 햇불

2003 / 12

제3권 4호 통권 12호

시 본 우울했던 과거사에 얽매어 언제까지 자조나 아유만 보낼 것인가?

특 집 대구·경북지역의 수구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대구정치의 발전방향

개방과 혁신으로 거듭나야 할 대구·경북지역

대구·경북지역 수구논쟁에 대한 역사적 접근

대구·경북의 보수성향이 왜 문제인가?

수구세력과 중도 보수세력을 혼동해선 안됨

대구가 과연 수구 보수 집단인가?

대구·경북의 성찰을 위한 제안

수구논쟁 발언 요지



2·28 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 근하신년

지난 한해 동안 성원해 주신 여러분의  
후의에 감사드리며 희망찬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께 행운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아침

시원  
2·28 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공동의장 조해녕 · 이완식 배상

# 2·28의 화살

2003년 12월 / 제3권 4호 통권 12호 계간  
2·28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 2·28시론

4 우울했던 과거사에 얽매어 언제까지 자조나 아유만 보낼 것인가? / 이삼규 시인·경북대 교수

## 기획특집 / 대구·경북지역의 수구논쟁 어떻게 풀 것인가

- 7 대구정치의 발전방향 / 정정길 울산대학교 총장
- 13 개방과 혁신으로 거듭나야 할 대구·경북지역 / 김석수 경북대 철학과 교수
- 17 대구·경북지역 수구논쟁에 대한 역사적 접근 / 김철수 영남대 국사학과
- 19 대구·경북의 보수성향이 왜 문제인가? / 김희곤 안동대 사학과 교수
- 22 수구세력과 중도 보수세력을 혼동해선 안돼 / 이명환 한국사회과학연구원장
- 24 대구가 과연 수구 보수 집단인가? / 이홍우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
- 27 대구·경북의 성찰을 위한 제언 / 홍덕률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 29 수구논쟁 발언 요지

## 지역탐험 / 신천

33 대구의 물줄기, 신천

## 문예광장

- 40 겨울 개운사 / 황해방
- 41 정기총회

## 시민단체 탐방

42 강북사람시민모임

## 자유기고

44 시민공원의 이름 / 석귀희 수필가, 경북고 교사

## 2·28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일지

- 46 제6차 2·28민주포럼
- 50 일지

## 입회 안내

- ※ 2·28 대구민주운동 기념사업회회는 여러분의 정성은 2·28정신의 계승 발전과 우리 나라 21세기 민주발전엔 큰 보탬이 됩니다.
- ※ 2·28회원으로 가입하신 분은 각종 지원을 제공받고, 회회장은 물론 영구히 전신영속 보장됩니다.  
(회생 1,000원, 계간 10,000원, 단체 100,000원)
- 입금처: 대구은행 018-05-002264-2 (사)2·28 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 ※ 본 법인에 납부하시는 회비 및 후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2호의 규정에 의거 규사의 기부금으로 손금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재정경제부령고 제2001-54호)

2·28의 화살 2003년 12월  
제3권 4호 통권 12호 계간  
발행인 / 이완식 편집인 / 박재건  
발행일 / 2003년 12월 31일  
편집주간 / 김철수

편집위원 / 오창균 김광주 김상숙 김학수 김웅도  
김태일 박영철 박복용 박승대 박진호  
유진춘 이방현 이상규 장영형 허종호  
발행처 / 시민법인 2·28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701-814대구광역시 동구 신암 3동  
164-11대구은행 신암동지점 2층

TEL : (053)943-0228

FAX : (053)959-2860

E-mail : 228demo@hanmail.net

홈페이지 : http://www.228.or.kr

## 우울했던 과거사에 얽매어 언제까지 자조나 야유만 보낼 것인가?

이상규 | 시인 · 경북대 교수

예전에는 대구를 교육문화의 도시라고 일컬어 왔다. 그런데 지금은 왜 대구를 교육문화의 도시라고 말했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광복을 맞이하기 이전부터 이미 이곳 대구에는 대구농림학교, 대구사범학교, 대구의학전문학교 등 제도적인 고등교육기관이 있어 지역 인재들을 길러내는데 큰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활동은 한국의 국가 발전의 큰 맥을 형성할 정도였다.

광복이 되자, 이 지역의 명문가문인 달성 서씨들의 문중에서 약 18만명에 이르는 부지를 국가에 기탁하면서 이들 세 전문학교를 통합하여 국립경북대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경북대학교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대구, 경북시도민의 힘으로 설립되었다. 그 당시 대구의 대표적인 영화문화 전통의 맥을 형성한 만경관, 자유극장, 대구극장 등의 극장주들도 극장 입장수익금의 일부를 지역국립대학의 설립을 위한 기금으로 하여 대학교의 설립에 힘을 보탤을 만큼 교육적 관심이 컸던 것이다.

이러한 대구·경북 시도민의 화합된 힘을 모아 대학설립의 바차를 가한 대구·경북지역의 경북대학교 설립과정은 화제가 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러한 전통과 분위기가 차츰 전국 타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부산, 전남 지역 등의 국립대학 설립의 도화선이 된 것이다. 그런데 최근 지역민의 교육에 대한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 술자리에서 "우째 충청도에서는 전재산을 모아 대학에 기부하는 김밥 할머니들이 많은데 대구·경북에서는 한 사람도 없노?"라는 자조 섞인 농담을 해야 할 정도로 대구의 교육의식은 실종된 지 오래다.

한편 이 지역을 문화의 도시라고 불려진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없지 않았다. 우리나라 근현대 예술문화계를 이끈 내노라 할 이들은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잠시만 생각해도 일제 저항민족시인 이상화 시인, 이육사, 소설가 현진건, 화가 이인성, 이쾌대, 음악가 현제명(친일 논쟁의 대상이긴 하지만), 박태준 선생 등 손꼽히는 현대문화예술의 선구자들이 있지 않는가?

다른 지역에서라면 이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기념관을 짓는다, 역사관을 짓는다, 야단법석을 부릴 법하지만 어찌 이곳 대구는 이들에 대해 그토록 냉담하고 무관심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다못해 지역의 초중고교의 지역학습 교재에 이들의 삶과 예술세계를 조명하는 교재라도 개발하여 지역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싶은 간절함이 있지만 선뜻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이러한 일을 하려고 들지 않는 문화 불모의 도시가 대구의 현주소이다.

몇 년 전 이상화 시인의 고택보존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되면서 다시 대구지역의 문화운동의 불꽃을 지펴보려는 시민들의 노력이 이제 그 결실이 맺을 것 같다. 대구광역시의 관심과 시민들의 하나된 힘으로 잊혀진 지역의 문화인물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이들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우리들 후세들에게 물려 줄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하여야 할 단계이다.

최근세의 우울했던 과거사에 얽매어 늘 '대구

는 엉망이야', '대구는 절망이야'라는 자조적인 아우에서 하루바삐 탈피해야 한다. 남 잘되는 것 보고 있지 못하고 배 아파하는 피폐한 우울증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대구'는 문화교육의 도시'라는 옛 명성을 되찾고 자랑스러운 문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대구시민이 앞장서야 한다. 지방정부에서는 자랑스러운 지역문화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며, 이에 지역민들도 적극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열악한 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미술관 건립, 오페라하우스 건립 등 대형 문화사업이 전개되어 왔듯이 앞으로도 지역문화관 건립, 생활사박물관 건립 등 수준 높은 문화를 함유할 수 있는 여건과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우리에겐 미래의 지역문화를 창도(唱導)해야 할 책임이 있다.

## 기획특집

# 대구·경북지역의 수구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햇볕 12호의 특집으로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의 제6차 2·28민주포럼을 옮겨 실는다. 제6차 포럼의 주제는 [대구·경북지역의 수구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로서 이 지역 전문가의 분석과 대안을 얻고자 하였다. 이번 주제는 대구·경북지역 의식구조상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서 공개적 토론과정을 거침으로써 대구·경북지역의 현재적 문제를 토론의 장으로 끌고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대구·경북지역의 정치문화를 공문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대구정치의 발전방향

## -수구와 진보의 개념적 갈등을 넘어서-

정정길 | 울산대학교 총장

### 1. 대구·경북지역의 경제 사회적 위기

대구·경북지역은 현재 위기에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도 모든 시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경제가 극도로 피폐한 상태에 빠져 있다. 이 때문에 실업자, 특히 청년실업이 증가하여 심각한 정치 사회적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

대구지역은 사태가 더욱 악화되어 있다. 과거 빈곤한 농업이 한국경제의 주종이었을 때에는 대구의 섬유산업이 선진적 지위를 향유할 수 있었고, 이것이 교육과 문화도시로서의 대구를 지탱해 줄 수 있었다. 그러나 고도성장시기에 상대적 지위가 급속하게 하락되는 섬유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산업을 육성하지 못하고, 기술혁신마저 소홀히 하여 대구경제는 계속적으로 상대적인 쇠퇴를 면치 못하였다. 설상가상으로 30여 년 동안 지역출신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자, 정권에 기생하여 쉽게 일확천금을 노리는 건설업 등의 업종이 대구경제의 기둥이 되는 극히 불건전한 경제구조를 지니게 되었다. 건설경기가 좋으면 대구경제가 좋은 것으로 착각하여 전문가들의 수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안일한 태도를 지니 왔다. 일단 정권이 타 지역으로 넘어가자 이

들 업종은 한 순간에 붕괴되어 대구 경제를 더욱 혼란에 빠뜨리게 되었다. 이제는 소규모로 축적된 지역 내의 자본마저도 건전한 투자기회를 찾지 못하고 비생산적이거나 생산성이 극히 낮은財테크 분야로 투입되는 실정이다.

타 지역이 선진 유망산업이나 고기술의 첨단 산업의 육성으로 상당한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기업들의 해외탈출이 가속화되고, 자동화가 진전됨에 따라 일자리는 급속하게 감소되어 간다. 여기에 더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은 중년층의 퇴직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정규직의 신규채용을 극도로 억제하여 대학졸업자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의 감소는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전체의 문제이고, 또한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더욱 해결이 어렵다. 세계화에 따른 격렬한 경쟁이 기술혁신을 자극하고,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정보화가 뒷받침되어 공장의 자동화와 脫노동화가 보편적인 추세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살아남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부담되는 지위를 잘라내고, 노동의 유연성확보를 위해 비정규직을 늘리면서 일자리는 급속하게 감소되었다. 약간이라도 기업조건이 좋은 지

역으로의 기업이동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다. 이 모두가 대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주어진 여건이다. 세계 어느 나라의 정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급박하면서도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한 방향으로 힘을 결집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역의 리더들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 헌신적으로 일해야 문제가 약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리더들의 역할은 정치권이 일차적으로 담당해야 할 과제이다.

## 2. 정치권의 역할과 과제

모든 경우에도 그렇지만, 민주정치에서는 시민들의 대표가 정치인들이다.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차적 책임을 정치인들이 지고 있다. 이들이 일차적 책임을 지고 대구가 부닥친 시급하고도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경제를 살리는 일은 어렵지만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다. 엄청난 실업을 감소시키기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너무나 시급하기 때문이다. 쇠퇴하는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기술개발이나 제품혁신을 추진하고, 새로운 유망업종을 발굴하고 시장을 개척하며, 경영혁신으로 경비를 절감하는 등 지역 기업을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일차적으로 기업인들의 책임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막대한 경비를 분담하거나 지원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며, 중앙정부의 지원과 국제시장의 정보 획득 등은 기업 능력을 초과하는 일들이다. 더욱이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의 운명을 관가름하는 인재의 육성은 시민 전체가 깊어져야 할 과제이다.

인재의 육성은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또 다른 본질적인 과제이다. 지역경제가 국제적 영향을 압도적으로 받게 될 것이므로, 새로운 지식과 국제적 감각을 지닌 인재들이 계속적으로 육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인재는 많은 기업들이 지적하듯이 전문적인 지식만으로 부족하고, 외국어 실력은 물론이고 문화 예술에 대한 국제적 감각도 갖추어야 하고,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 성실하고 공정한 품성도 지녀야 한다. 이러한 인재의 양성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시민사회의 규범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어렵다.

이상의 제 활동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은 다양한 집단에 의하여 수행되지만, 지역의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과 학계의 도움을 받아 정치적 리더들이 지역주민의 힘을 결집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시민의 대표로서 정치인들이 중심이 되어야 다양하고 대립적인 의견들을 조율하여 통합된 대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사회에서 어느 누구도 시민들의 대표를 대신할 수 없다.

## 3. 대구·경북지역의 정치 위기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구·경북지역의 정치는 경제 사회에 못지않게 위기에 처해 있다. 정치인들이 지역문제 해결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칭 지역정서에 휘말려 수동적인 역할만 하고 있다. 과거 10여 년 동안 한나라당 출신 국회의원들은 한나라당의 간판만 걸면 당선이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공천받는데 주력해 왔고, 반대의 여당에서는 어차피 낙선될 것을 전제로 낙선 후에 잠권당이 분배하는 정부나 여당의 당직 감투에 관



심이 더 많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중앙정부의 실정이나 집권당의 비리폭로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 대안의 제시에 대하여 소극적이었다. 여당의 후보들은 중앙정부로부터 대구·경북지역에 필요한 지원을 획득하는 데 노력하기보다는 야당이 장악한 시 행정이나 도 행정에 대하여 냉담한 전망을 하는 자세였다. 이리하여 정치권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대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거나 제시하지도 않았고, 선거 때에만 형식적인 구호를 내거는 상황이 되풀이 되었다. 당연한 결과로 중앙정부의 지원도 극히 저조한 상태가 계속되었다.

결과적으로 정치권이 중심이 되어 많은 토론과 논쟁을 거치면서 결정되어야 할 지역발전의 대안들을 제시하고 검토하는 것은 행정의 몫이 되었다. 정치권이 방관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행정이 정치기능을 대행하고 있다. 물론, 경상북도와 대구시의 행정조직은 행정의 경험을 살려 훌륭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많은 학자나 전문가들이 검토하여 전국적으로 보아도 손색이 없는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들은 시민 전체가 힘을 결집하여 추진해야 할 것들이 대부분이고, 중앙정부나 기업으로부터의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들도 많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대대적인 참여와 지식인들의 다양한 견해와 심각한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계획은 바람직한 꿈으로만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2차대전 이후에 미국의 항구도시였던 San Francisco가 관광도시로 탈바꿈할 때나, 영국의 Glasgow가 산업도시에서 문화도시로 전환될 때와 같은 대담한 탈바꿈이 대구에서도 절실하다고 필자는 믿고 있다. 이들 도시의 탈바꿈은 격렬하고 심도 있는 대 논쟁이 있는 후에야 가능하였다.

실현가능하면서도 과감한 탈바꿈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분야 분야의 지도급 인사들이 크게 각성을 하고 혁신적인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물론, 혁신적 전환에 따르는 수많은 고통과 실패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고통과 실패의 감수는 어느 한 분야에서만 추진될 수 없다. 모든 분야에서 비슷한 희생정신과 노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렇게 전체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리고 밑만이 아니라 실제로 전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누누이 되풀이하지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정치 리더들이 앞을 서야 한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여, 학계나 언론에서 주도하는 경우에는 논쟁과 토론을 마무리하는 작업과 집행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지원만이라도 정치권이 담당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행정이 주도한 발전계획들은 중앙정치에 눈을 돌리고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후보들에게는 중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중앙의 지원이 절대적인 사업들은 점차 지역의 행정에서 실현 불가능한 대안으로 사라져 간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대구·경북지역이 최근에 중앙정부로부터 외면당하였기 때문인가? 원래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역발전 계획에 무관심하기 때문인가? 원래 발전계획은 행정의 몫이기 때문인가? 이 모든 것들이 약간씩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더욱 본질적인 문제로서 대구·경북지역의 정치풍토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 4. 불건전한 정치의식

대구·경북지역의 잘못된 정치풍토는 지역주민들의 불건전한 정치의식에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다.

10여 년 전부터 시작된 중앙정부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두 차례에 걸친 대통령 선거에서의 패배로 인한 냉소적 폐배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김영삼 정권의 등장 이후 서서히 시작된 중앙정부에 대한 반감은 김대중 정권에서 절정을 이루고, 노무현 정권의 등장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에서부터 시작하여 노태우 대통령시절까지 30여 년 동안 계속하여 집권세력의 중심부가 되었던 경험이 주민들의 F의식을 강화시켰다. 여기에 더하여 이 시기에 달성한 기적적 고도성장은 지역 주민들의 자부심을 키워 줄만한 역사상 유례가 드문 발전이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전두환 대통령에 이르기까지의 집권세력에 저항하고 비판하던 야당지도자인 김영삼과 김대중 대통령에게 강한 거부감을 지역민들이 느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집권당의 후보였기 때문에 선거 시에는 지역의 지지를 받았지만, 당선 이후에 구 집권세력의 몰락과 전-노 대통령의 구속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선민의식을 자극하였고, 김영삼 대통령을 비판함으로써 이회창 후보가 인기를 회복하는 기현상을 초래하였다. 지역주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이회창 후보를 패배시키고 등장한 김대중 대통령은 주민의 선민의식에 다시 한 번 상처를 입었다. 김대중 정권시절에 추진한 대북 유화정책이나 많은 국내정책들이 박정희 대통령 식의 정책관리를 노골적으로 부정하여 주민들의 자부심에 또 다른 상처를 입혔다. 노무현 정권의 등장은 주민들의 자부심과 선민의식을 뿌리 뽑는 일천 데 일천 격의 충격이 되었다. 이리하여 과거를 기리는 과거지향적 소극성과 냉소적 비판의식이 많은 시민들을 괴롭히고, A. Hirschman이 과거 남비의 몰락을 가져 온 장본인이라고 지적인 폐배

주의적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벌어진 두 차례의 충격적 지하철 사고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태풍 매미의 피해가 정신적으로 더욱 쓰라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경제 사회적 문제에 더하여 위와 같은 정치의식상의 공황이 계속되면, 머지않아 대구·경북의 정치는 더욱 파멸적인 혼란을 맞이할지 모른다. 경제적 호황기에도 증가하는 대학졸업생들의 대량실업과 만성적인 경제불황이 겹쳐지면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비주류 주도정치(Outsider-politics - 외부인사 주도정치)가 국정관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왔다. 비주류 주도정치는 정부의 문제해결능력에 실망한 시민들이 기존의 주도적 정치인들을 불신하고 무조건 새로운 정치인을 지도자로 선택하려는 경향이다. 과거부터 국정관리의 일부분을 담당하거나 비슷한 경험으로 전문성을 축적한 정치인들이 조심스럽게 실현가능한 공약을 내걸고 시민들의 지나친 요구나 기대를 외면하는 반면에, 이러한 경험이 없이 정치권의 외곽에서 활동한 정치인들은 실현가능성보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여 지금까지 정부가 수행하지 못한 일들을 성취할 것 같은 주장으로 선거구민들을 현혹시키고, 현실의 경제 사회적 질서에서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 많은 시민들에게 인기를 얻게 된다. 미국에서는 워싱턴 정가에서 잔뼈가 굵은 정치인이 아니라, 시골에서 지사 생활을 한 정치인들이 계속 대통령이 되고, 비슷한 현상이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등만이 아니라, 이웃 일본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도 장기적 실업과 전망이 뚜렷하지 않은 경제상태에서 문제해결을 기존의 주류 정치인들에게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젊은 세대의 좌절에 힘입은 바 크다. 이 상태가 좀 더 악

화되면, 선동 대중정치가 등장하고 견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 5. 대구·경북지역정치의 발전방향

과거지향적 패배주의와 정치적 무관심을 방지하고는 지역발전을 이룰 수 없다. 세계화의 대변화가 인류사회를 휩쓸면서 격렬한 경쟁이 일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뼈를 쥐는 각오의 개혁이 없이는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실업이 증가하고 대구는 더욱 심각한 실업과 경제침체가 계속된다. 이러한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지도 않는다. 현실성이 약간만 약해도 틀림없이 실패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모르는 시민들은 비주류주도 정치의식에 빠져 든다.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면서 지역의 문제를 조금씩이라도 해결하려면, 많은 것이 달라져야 한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인 발상전환이 필요할 뿐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타 지역의 자세를 배워야 한다. 자립적 노력을 경주하되 외부로부터의 지원획득에도 과감하게 움직여야 한다. 피곤했어도 참고 같이 노력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열심이 일하도록 독려하고, 열심히 일할 때에는 못 마땅한 점이 있어도 도와주어야 한다. 서로를 신뢰하고 협조하여 소멸되어 가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축적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냉소적 비판, 부정적 무관심을 극복하고 개척적 진취성과 긍정적 참여를 내면화하는 정치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치이식개혁은 정치인을 포함한 지역 엘리트들이 주도해야 하지만, 시민들에 대한 설득을 통하여

모두가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여론을 주도하는 지식계층이 과거를 과감하게 떨쳐 버리는 정신자세를 지녀야 한다. 대부분의 대구·경북지역 주민들이 박대통령 이후의 기적적 고도성장에 자부심을 지니고 있지만, 일부의 지식인들은 그 시절의 개발독재가 발생시킨 인권탄압과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하여 강한 저항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심한 탄압과 고통을 받았다. 이들 중의 상당수가 김영삼 대통령 이후의 3정권에 참여하여,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배척을 받아 왔다. 자연스럽게 피차 상호불신과 반감으로 협조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고, 이것이 지역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언제까지 이런 상태를 지속할 수는 없다. 이제는 피차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여야 한다. 일면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이래 30여 년에 걸쳐 한국경제를 기적적으로 성장시킨 공로와 이에 대한 시민들의 자부심을 평가하여야 하고, 타면에서는 개발독재에 부수된 인권탄압과 청년 기생 인사들의 부조리에 저항하여 민주화운동을 전개한 재야인사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평가해야 한다. 정말 풀기 어려운 감정적인 문제이지만, 어떻게 해서든 풀어야 한다. 그리하여 과거를 묻어 버리고 지역사회가 부닥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자세를 지녀야 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반대의견을 지닌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이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토론하고, 이 토론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진정한 민주정치이식을 배양하여야 한다.

건전한 정치의식을 함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고 정치적 지도자로 훈련시켜야 한다. 경제에서부터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압도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보화·세계화의 조류 속에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지니고 남은

들을 개혁하며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사들이 정치적 지도자로 키워져야 한다. 생리적 연령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흐름을 알고 헌신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육성해야 한다. 낡아 빠진 수구나 진보의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리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키워야 한다. 이러한 인재들이야말로 지역의 발전과 국가의 발전을 연계시킬 수 있는 큰 인물이 될 수 있다. 웬만한 잘못을 덮어주고,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치발전에 새롭고 특출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없

다. 우리가 언제나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와 인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한 방법에서도 새롭고 특출한 것이 있을 수 없다. 목적과 방향 및 방법을 포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이미 우리들의 머리 속에 존재하고 있다. 남은 일은 편견과 아집을 버리고 대의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행동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대국적 이상주의에 불타 개인적 안위나 소아적 이해관계를 과감하게 박차고 일어서선 2·28의 정신을 살리는 길일 것이다.

# 개방과 혁신으로 거듭나야 할 대구·경북지역

김석수 | 경북대 철학과 교수

## 1. 왜 대구·경북지역은 보수지역으로 이해되고 있는가?

내가 서울에서 대구로 거주지를 옮긴 이후 서울, 부산 등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갔을 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구에서 살기 힘들지요'라는 염려 섞인 물음을 나에게 자주 제기하곤 하였다. 이런 물음을 던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구가 '꽤 막힌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대구에 대해서 특별히 알지 못했던 나 역시 그 동안 무슨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대구' 하면 당연히 '보수적인 도시'라는 이미지를 무의식적으로 떠올리게 되었으며, 지금도 그런 심적 상태를 여전히 지니고 있다. 사실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이런 이미지는 단순히 이 지역이 '보수'라는 차원을 넘어 '수구'라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면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이 지역이 왜 이런 이미지를 지니게 되었는가? 이 이미지가 사실이라면 이런 이미지가 생성된 배경을 분석하고, 나아가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실 이 지역은 그 동안 동학혁명, 혁신유림운동, 사회주의운동, 국제보상운동, 아나키즘운동 등 진보적인 다양한 운동들이 존재하였으며, 특히 자유당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2·28민주학생운동이 일어난 곳이다. 그리고 지금도 이 지역에는 다양한 시민운동을 통하여 진보적인 움직임

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왜 이런 진보의 도시가 보수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부여받게 된 것인가?

이것은 아마도 5·16군사 쿠데타 이후에 생긴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래 2·28민주학생운동은 대구 시내 고등학생들이 이승만 독재정권에 대해서 펼친 저항운동이었다. 이 당시 이승만 정권은 초대교육부장관이기도 하였던 안호상 철학자와 더불어 '일민주의' (一民主義) 이념 아래 강력한 국가주의를 펼치고 있었으며, 한민당과 미군정의 도움을 받아 강한 반공주의 입장에서 보수주의를 주도하고 있었다. 바로 이 부당한 권력에 고등학생들이 '학원을 정치도구화하지 말라'라고 외치면서 저항하였다. 실제로 당시의 정부가 학생과 청년들을 중심으로 형성한 학도호국단, 대한청년단은 이승만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 아욕에 도구로 이용되었다.

바로 이런 부조리를 깨고 나온 것이 이른바 2·28민주학생운동이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운동은 4·19혁명이라는 거대한 진보적 흐름을 만들어 내는데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내 5·16쿠데타를 탄생시키는 역설적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즉 이 지역 학생들이 벌인 진보의 운동은 이 지역 군인에 의해서 주도된 군사쿠데타에 의해서 소중양주의로 되돌아왔다. 이 이후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 이르기까지 자그마치 30년 가량을 이 지역은 마치 신라

천년의 왕국을 되살리기도 하듯이 이 나라의 보수반공주의의 원산지가 되었다. 정치권은 온통 보수 일색이며, 경제권도 거기에 맞물려 새로운 도약이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 역시 보수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 지역의 고등학생은 이제 더 이상 2·28의 고등학생이 아니다. 대구 수성구의 학생들은 서울 강남구의 학생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권력 지향적인 학생들이 되어가고 있으며, 선생님들은 부모들의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명명식 교육을 지속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그 동안 문민의 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의 정부를 거치면서 이 지역은 더 이상 이 나라의 중앙에 자리할 수 없게 되었다. 오히려 다른 지역 사람들은 이 지역이 이 나라의 현대사를 망쳐놓았다고 비판한다.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 지역은 자기 정체성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의 위치를 잃은 것도 서러운데, 거기에 보수반동지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비난까지 받게 되니 이 지역 사람들은 더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마침내 더 강한 수구성과 폐쇄성을 산출하고 있다. 게다가 지하철 대참사가 발생함으로써 이 지역 사람들은 절망감과 허탈감에 빠져들고 있다.

이제 대구는 과거의 영광을 꿈꾸면서 향수병(nostalgia)에 매몰되어 있을 수 없으며, 미래를 향해 새롭게 일어서는 혁신(novatio)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는 대구가 알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진단해보아야 할 것이다.

## 2. 대구·경북지역 어디로 가야 하는가?

참여정부가 들어 선 이후로 보수와 진보에 관한

논쟁이 어느 시기보다 더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과거 군사정권시절 반공주의, 안보주의, 경제제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주의, 중앙권력주의를 추구해왔던 보수세력이 문민의 정부와 더불어 정권을 넘겨주게 되고, 그 이후 문민의 정부, 국민의 정부에서도 여전히 잔존하고 있었던 보스정치(보스정치)의 특징이 무너지면서 사회가 더 더욱 탈권위적이고 다원적인 형태로 변화하게 되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보수세력의 위기의식과 진보세력의 개혁의식은 더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다.

사실 우리의 근대화는 서구처럼 아래로부터 시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근대화가 아니라 위로부터 명령을 통하여 이루어진 근대화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근대화는 봉건적 기반 위에서 추진된 근대화이다. 우리에게 자유주의적 이념을 지향한 시민사회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으며, 가족적 모델에 입각한 국가가 지배적인 형태로 자리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는 가부장적 국가형태 안에 갇혀 있었다.

따라서 서구적인 진보 이념이 제대로 자리할 수 없었다. 가부장적 국가의 독재에 부당함을 지적하는 진보주의자는 이내 적색분자 내지는 반동분자로 몰리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진보와 보수는 좌우 개념으로 고착화되어 양 날개가 상생(尙生)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다. 독재정권을 비판하는 세력들의 민주화운동은 근대화를 가로막고 민족의 안보를 저해하는 적대세력으로 규정되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보세력은 보수세력에게 늘 열세를 면치 못했으며, 보수세력은 늘 중앙세력이었고, 명령과 권위의 주체였다.

이런 막강한 위력을 지니고 있었던 보수세력이 마침내 중앙의 자리를 진보세력에게 내놓아야만 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도 우리의 보수세력은 진보의 한쪽 날개를 붙들고 우리가 모두 함께 날 수 없는 불행한 상태를 창출하고 있다. 지금 우리 한국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보수세력의 결집력에 바탕이 되었던 연고(지연, 혈연, 학연)주의는 여전히 강한 힘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이런 부당한 힘을 깨어나가려는 진보세력은 자신들의 힘의 열세를 담당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갈등 상황의 진원지를 파고 들어가 보았을 때, 우리 사회의 진보의 가장 반대편에 자리하고 있는 지역이 넓게는 영남지역이며 좁게는 대구·경북 지역이다. 따라서 이 지역은 오늘날 보혁 대립의 한 축을 형성하는 지역이다. 그러므로 세계의 다원주의적 흐름에 발맞추어 세계 속에 한국이 제대로 자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지역이 얼마나 진보세력을 생산적으로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지역은 더 이상 중앙에 편승되거나 예측되는 상황을 탈피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지역의 힘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중앙권력을 소유하는 작업에만 몰두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지역권력을 중앙권력화 하여 중앙권력을 소유하는 주체가 아니라 중앙권력의 부당함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중앙 없는 권력'을 형성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 지역은 지금의 서울공화국을 깨고 지역들 사이의 다원적 평등을 마련하여, 국제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체적인 지역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2·28민주학생운동이 지향했던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라는 인류적 차원의 행보가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는 우리 내부에 자리하고 있는 비민주성을 반성하고 비판하며 개혁하는 일을

감행해야 할 것이다.

우선 첫째로, 동종교배와 동맥경화증에 시달리고 있는 이 지역 정치권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느 사회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사회의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일찍이 칸트의 주장처럼 '모두가 죽어 누워있는 공동묘지의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되고 또 그것이 생산적으로 수용되는 사회가 될 때에만 그 사회는 미래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한나라당 일색이며, 지역관공서와 교육기관에 특정 학벌이 집중되어 있다. 이런 단일적 구조 아래서는 다양성이 발현될 수 없고, 따라서 창조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한 마디로 이런 사회는 열린사회가 아니라 닫힌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지역이 발전하고 한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정치권의 혁신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이 지역의 시민운동단체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지역민들의 정치의식을 개혁하고, 역사성과 사회성을 결여하고 있는 반민주적 정치인들을 정치무대로부터 떠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지역행정과 언론의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난 대구참사가 보여주듯이 행정의 안일성과 비효율성 및 권위주의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으며, 언론 역시 보수성이 강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행정을 감시하고 언론을 비판하는 주민참여계의 활성화 및 시민운동단체의 적극적 활동이 더 많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교육의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직도 대구의 중·고등학교 교육은 일방적이고 명

평적인 교육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으며, 토론을 통하여 상상력과 창조력을 길러주는 자율적인 교육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권위주의적 교육을 받게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 사회가 보수성에 머물러 있게 하는 씨앗이 된다. 특히 이 지역의 교육은 강남 못지 않게 학벌주의에 구속되어 있다. 학벌과 자본이 결합되어 작동하고 있는 대구 수성구의 교육현실은 지역내부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대학도 좀 더 과감하게 혁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 대학이 수도권 대학에 예속되는 악금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 내부의 민주화와 지역대학들 사이의 연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지역 주민들은 신라 천년의 왕국이나 한국 현대사의 30년의 공화국을 그리워하면서 중앙을 되찾으려는 향수병을 벗어 던지고, 서울공화국을 견제할 수 있는 지역들 사이의 연대성 모색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강한 연고주의에 바탕

을 두고 분지 안에 들어앉아 기문과 학벌을 따지는 배타적 태도를 벗어 던지고 타 지역민들을 환대할 줄 알고 그들을 이 지역사람들로 만드는 개방성과 여유로움이 확립될 때에만 이 지역은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제까지 박정희 시대 이후 군사정권에서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매카시즘의 질병을 벗어 던지고 이 지역이 남북통일에 앞장서는 지역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북한선수 참여와 관련하여 보여준 이 지역의 이중적 모습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의 병은 곧 이 지역의 병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지역은 한국 현대사의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주체이자 동시에 한국병의 원산지이다. 이 지역의 민주화는 곧 한국의 민주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2·28민주학생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못다 이룬 4·19와 87년 6월 항쟁의 목적을 완수하여, 이 땅이 진정한 진보의 터전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 대구 · 경북지역 수구논쟁에 대한 역사적 접근

길 일 수 | 영남대 국사학과

근대 한국사회는 급격한 변동의 시대였다. 우리의 근대는 서구자본주의 세력과 일제를 포함하는 외세의 침탈에 저항해 자주적 역사를 창조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실천하는 과정이었고, 아울러 봉건을 극복하고 근대를 달성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실현하는 과정이었다. 이처럼 자주적 근대화라는 역사적 과제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시대적 상황과 지향성에 따라 여러 정치세력과 이념으로 나뉘어졌다. 그중 '수구'라는 한 정치세력을 구분할 수 있고, 그 뒤에는 냉전세력이라고 하는 말까지 붙여 사용하였다.

수구세력이란 어떤 특정한 모순된 정치 상황에서 어떠한 이익(정치, 경제, 사회, 문화 파워)을 누리고 있던 세력을 말한다. 가령 한반도의 분단 체제를 형성, 유지 재생산하려는 세력으로서 기존의 모순 구조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억압하고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사회의 지배구조를 이루고 주류를 차지했던 '수구세력'과 우리 지역의 정치사상적 의식과 담론과는 어떻게 연관될 수 있을까. 이번 발표의 문제제기처럼 대구 · 경북지역은 수구세력의 온상지라는 명예를 무겁게 짊어지고 있다. 정말 대구 · 경북의 정치성향을 수구라고 할 수 있을까. 수구의 정치성향이 한국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현상의 부분이라면, 이 지역에도 그러한 성향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 수구는 언제 형성되며, 그

내용은 무엇일까. 수구세력의 형성에 대해서 분단 시점을 사례로 들어 보면, 해방공간 대구의 정치적 지형 가운데 우익세력 내부에는 일제하 반민족 행위를 일삼은 사람들이 한 부분을 형성하였다. 그들은 해방후 친미 · 반공 태도를 보이면서, 반개혁 · 반대중의 정치적 태도를 가졌다. 특히, 한반도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되어 분단이 이루어질 시점에서는 남한만의 단독선거에 의한 단독정부 수립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또한 그들은 지방권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지방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중앙에 귀속시키며, 자신의 기득권을 재생산하였다. 따라서 수구세력은 해방공간의 역사적 과제인 개혁과업과 통일민족국가건설을 방기한 채 일제하 민족모순을 해방후 체제모순으로 대체케 한 주력의 일부였다. 또한 체제모순을 지렛대로 해서 반민주적 사회 구도를 만들어 나갔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다양한 정치사상의 수용과 형성 자체가 불가능하고, 민주주의의 원리를 왜곡시킨다.

1960년대 대구 · 경북지역의 정치 구조도 중앙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정치세력의 일부는 사회민주주의를 내세우고 대중의 지지를 호소하며, 반 이승만투쟁을 전개했으나 그 결과는 냉담했다. 특히, 4월혁명기 7 · 29총선거에서 사회민주주의 정치세력은 용공성 시비에 휘말리며 참담한 패배를 경험하여 기존 정치질서의 벽이 얼마나 두터운지를 실

감하였다. 7·29총선거에서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 지형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비자유당의 정치세력을 선택하는 수준이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정치세력이 수구를 조작했을 때 국민들이 그것의 지지기반이 되었다는 점이다. 곧 국민들의 정치수준도 바뀌어야 할 대상이었다. 4월혁명 직후 대구의 정치를 파악한 잡지 《사상계》에 따르면, 대구는 정치에 대한 높은 관심이 다른 지역보다 높으나 관념적이며, 이론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고 하였다.

이런 판단은 이때만이 아니라 일제시기 대구지역 언론이 자주 지적하는 사안이었다. 곧 근대사회 이행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득권세력은 양반이 아니면서 양반 행세를 하고, 사회성을 상실한 재층이었다. 이런 사람들은 대구의 대부호들이었다.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권력과 밀착하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여 지역사회를 장악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대구는 부자의 도시, 지주의 도시로 알려졌던 것이다. 그들은 지방권력을 형성하고, 지방사회의 자율성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사회적 존재들이었다.

그리하여 지역 언론은 대구의 가장 큰 문제로 상상성의 부재를 꼽았던 것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언론은 대구를 빗대어 ‘늙은 대구’, ‘양반분위기’, ‘재산보호의 도피민이 몰려드는 도피처’, ‘보수적이며

퇴영적인 도시’ 등으로 비판하였다. 또한 대구는 점차 침체하는 가운데 늘어나는 것은 음식점과 작부의 수라며 안타까워했다. 이때가 공황과 전쟁동원체제로 접어드는 1930년대였다.

이와 같이 대구의 수구세력은 일정한 역사성을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특정한 시기, 곧 5·16군사쿠데타 이후를 수구세력의 형성시기로 설정하는 것은 외부적 요인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비취질 수 있다. 오히려 근대사 전개과정에서 대구의 수구세력의 형성을 찾고, 증폭되는 계기를 찾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우리 역사와 세계사는 1990년대를 거치면서 지속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TK정서도 자연스레 희미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그것은 한국 정치역학의 구도의 변동에서 오는 것이라 여겨지기도 한다. 따라서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다면 대구의 수구논쟁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국가권력의 점진적 후퇴, 지방분권에 의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통해 과거 중앙집권적 정치구조 아래 수구적 성향을 청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구의 청산은 지속적인 양질의 변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은 과거 우리의 정치의식과 관행을 반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 대구 · 경북의 보수성향이 왜 문제인가?

김희곤 | 안동대 사학과 교수

## 1. 진보와 보수, 그리고 반동

현 정권이 등장한 뒤, 온 나라가 진보와 보수라는 기준으로 나뉘었다. 마치 해방 직후에 좌와 우로만 세상 모든 일이 구분되던 것처럼, 오늘날 이 사회를 규정지을 수 있는 유일한 기준으로 회자되는 듯하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면, “진보는 발전이요, 보수는 퇴보이다”라거나, “진보는 정의요, 보수는 불의이다”, 또는 “이 사회에서 진보가 반드시 승리해야 하고 보수는 무너져야 하는 존재이다”라는 양자택일적인 내용으로 들리기도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보이며, 무엇이 보수인가? 사전적인 의미로 정리하자면 진보는 사회의 기존 모순을 해결하려는 사상이나 새로운 체제를 지향해 나가는 행위 그 자체이다. 따라서 진보의 기준은 그 사회의 모순을 무엇으로 파악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와 반대로 보수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회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 말은 진보만이 아니라 보수도 발전논리에 속한다는 뜻이다. 보수도 발전논리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보수와 반동을 구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오류이다. 따라서 보수와 반동은 다른 것이고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런 경우 자연스럽게 ‘수구꼴통’이라는 상스러운 표현이 반동분자에게 맞는 것이지, 결코 보수에다가 뒤집어써줄 말이 아님을 알

게 될 것이다.

## 2. 진보 · 보수만으로 역사를 평가하지 말라

진보와 보수만이 역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다. 더구나 이를 이분법으로 나누어 진보를 ‘선’이요 ‘정의’라거나, 보수를 ‘악’이요 ‘불의’라고 구분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논리이다. 왜냐하면 진보나 보수에는 모두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증명되지 않은 이상세계를 추구하는 점에서 진보는 발전지향적이긴 하지만 불확실하고 위태롭다. 더구나 그것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예상하지도 못한 부정적인 결과로 귀결된 사례도 근현대사 속에서 발견된다. 진보지향을 내걸었던 급진개혁파가 그러했고, 친일파들이 그러했다. 따라서 진보와 보수를 선악의 개념으로 보거나, 이것만으로 시대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다.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를 살펴보자. 이 시대는 진보와 보수라는 구획보다는 민족문제가 더욱 중요한 평가기준이 된다. 일제강점기는 말 그대로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한국이 식민지가 된 시기이고, 따라서 역사적 최고 목표는 민족의 독립을 달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를 평가하는 데에는 진보와 보수도 중요하지만, 민족(민족중시 · 민족주의)과 반

민족(민족경시·국제주의)이라는 기준이 더욱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것임은 당연하다. 진보만을 정의라고 판단한다면, 동양평화론이나 대동아주의처럼 일본침략논리에 함몰된 근대지향과 국가주의를 내세운 철저한 진보주의자였던 친일파를 찬양하는 것이 될 뿐이다.

일제강점기 한국사의 특성은 민족문제라는 최우선 과제에 진보와 보수성향이 어울려 만들어 나간 점이다. 1910년대에 공화주의라는 진보론과 무력투쟁이라는 보수적 방략을 결합시켜 새로운 진보론을 만들어 낸 대한광복회를 비롯하여, 1920년대 후반의 신간회와 유일당운동, 1930년대 중반 이후 좌우합작(협동전선·통일전선), 1940년대 임시정부의 좌우합작 실현은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극복하고 민족문제에 집중한 한국사의 특성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와 보수라는 틀만으로 한 시대를 재단하려 드는 자세는 역사를 다시 왜곡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왜소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 3. 대구·경북의 역사적 보수성

전통시대의 대구·경북은 중앙에 대응되는 지방으로서 존재했고, 역사문화의 특성도 그러했다. 즉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의 성격을 지녔고, 특히 조선후기에 중앙정계에서 배제된 뒤로는 정보 흡수마저 차단되거나 뒤늦었다. 때문에 중앙의 유연한 변화와는 달리 성리학을 핵으로 삼은 강력한 대의명분론, 즉 원리주의 성향을 드러냈다. 영남만인소를 비롯하여 위정척사에 이어 의병항쟁을 이어나간 바탕에는 강한 대의명분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특

히 그렇게 위세 등등하던 중앙부가 열강의 침략 앞에 맥없이 무너지고 변질되자, 영남은 중앙부를 비웃으며 원리주의를 고수했으니, '小中華' 가운데서도 '唯一한 中華'로 자처하였다. 그러니 누구나 이곳의 정서를 보수적이라 규정지을만 했다.

1900년대 이후, 다시 말해 해양세력이 밀려들면서 대구·경북인의 사고와 지향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대의명분과 원리주의가 강했던 만큼 꺾어야 하는 갈등도 컸다. 민족자본에 눈을 뜨는 인물과 식민자본에 기생하는 인물이 나타났고, 민족주의자와 친일파의 갈림길이 만들어졌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인의 정신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이 민족양심과 더불어 살아온 노선이다. 이 사실을 두고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라고 물아불일 사람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만은 않다. 지금까지 국가보훈처에 의해 독립유공자로 포상된 인물이 9,000명 정도인데, 이 가운데 6분의 1이나 되는 유공자를 대구(117명)와 경북(1,408명)에서 배출했다(2002년 통계). 이 사실은 강한 원리주의에 바탕을 둔 보수성이 민족문제와 부딪칠 때, 이곳이 그 어느 곳보다 강하고도 끈질긴 저항성을 보였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방 후 민주화 혁명의 발상지가 이곳인 점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님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다. 그런데 누가 대구·경북인의 보수성예다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는가?

### 4. 보수가 나쁜 것이 아니라 권력독점이 잘못된 것이다

왜 대구·경북이 수구꼴통이라고 폄하되는가? 보수가 왜 수구꼴통인가? 이처럼 부정적인 호칭이 등



장된 이유는 해방 후 상당 기간 동안 대구·경북인이 중앙부를 점령하고 독점체제를 장기간 유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통적인 보수성과 원리주의를 바탕으로 형성된 대의명분 중시와 저항성보다는 오히려 기회주의적 참여와 기득권 유지라는 굴곡을 드러냈다. 따라서 전통적인 정체성마저 뿌리 채 흔들리게 되었다. 특히 이 지역출신이 장기군사독재정권의 핵심에 있는 동안 이에 편승한 인물도 많고 보니, 대의명분과 저항성을 내세우던 전통적인 정신을 찾을 길이 없게 된 것이다. 더구나 이에 참여하지 않고 저항하던 인물들은 그저 TK라는 이름 아래 매도되면서 심한 피해의식을 갖게 되었고 심지어 자조

섞인 이야기를 털어놓는 경우도 많았다.

대구·경북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보수성이 강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그것이 악이 아니라 발전의 한 유형이다. 그러한 성향은 어느 지역의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인문지리환경의 소산물이다. 즉 환경화적인 현상이다. 굳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온 현상을 부인하려 들지도 말아야 한다. 다만 그 가운데에도 진보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서로가 발전의 논리 가운데 하나일 뿐, 유아독존적인 존재가 아님을 깨달아야 하고 공존·공영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 수구세력과 중도 보수세력을 혼동해선 안돼

이영환 | 한국사회과학연구원장

지난 1961년 5·16이후 약 30여년간에 걸쳐 지역출신 대통령 세 분이 탄생했다. 이들은 모두 군출신으로서 최고 권좌에 올랐지만 무력에 의한 권력 획득이었기 때문에 권력의 정통성(legitimacy) 시비에 시달렸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비록 직선 대통령이었지만 그도 5공 실세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군부세력인 것이다. 이 시기에 대부분의 지역민들은 이들 권력편에 서은 것이 사실이다. 이렇다 보니 YS·DJ 민간정권(civilian governments)을 거친 지금에 와서 일부세력은 대구·경북을 수구세력집단으로 보고 있다. 대구·경북을 수구세력으로 단정해도 편찮은가? 필자는 이러한 시각에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 한국의 경우 전후 동·서 냉전(cold war) 시대의 산물로서 국토분단, 민족분단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들 군사정권과 정면으로 맞서다가 탄압을 받은 DJ 출신지역인 호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이 수구세력집단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작위적으로 대구·경북을 클로즈업해서 수구세력 집단으로 단정해서는 안 되며 지역통합과 화합차원에서도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구세력과 중도 보수세력을 혼동해선 안 된다. 수구세력은 정통성 문제 등 과거의 잘못된 권력에 영합하여 현재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세력이며, 중도 보수세력은 이념적으로 민주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민주주의와 자본주

의가 갖는 모순을 점진적으로 고쳐나가려는 세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세력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필자의 경우는 중도 보수성향의 정치이념을 갖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정치개혁론자이다. 필자의 출저 정치칼럼집(대통령은 어떠한 인물이어야 하나 / 1997 형설출판사, 모든 것에 앞서 정치가 바로서야 / 2002 대교) 등을 통해서 우리 한국정치에 대한 진단과 함께 정치개혁의 방향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 즉 국가경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자질, 도덕성 등 리더십의 중요성의 역설은 물론 ① 돈정치, 돈선거의 근절, ② 영국식 완전선거공영제 실시, ③ 보스정치, 지역정치 창산, ④ 이념과 정책에 의한 정당제도 확립을 통한 정당정치 정착, ⑤ 당내 민주화 등 정당의 민주적 운영, ⑥ 유권자의 의식변화를 통한 선거혁명 이룩 등이 그것이다.

우리의 정치현실에서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뽑는데 「사람」이 변수가 왜야 함에도 「돈」이 변수가 되는 선거하에서는 정경유착 및 부정부패는 필연적인 현상인 것이다. 돈정치, 돈선거라는 진흙탕의 정치풍토하에서는 능력과 역량을 갖춘 인물이 정치를 기피하게 되고 사이비 정치인이 난무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적 비극이다. 지금 우리의 정치권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사 비리 및 대선자금 비리로 대통령 재신임 투표 및 특검정국 등 엄청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금과 같은 우리의 돈정치, 돈선거를 그냥 놔 두면 고대 로마제국이나 근세 중국의 청조가 붕괴하듯이 우리의 경우도 망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정치권의 비리 전반을 과감히 파헤쳐 그 주범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의법 처단해야 한다. 국가 공권력기관인 검찰은 그간의 정치검찰이라는 불명예와 불신을 씻고 파사현정(汚穢)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정경유착, 부정부패 연루자는 정치일선 및 기업일선에서 도태시켜야 한다.

도덕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있는 자가 지도자가 돼선 절대 안 된다. 이들을 누가 신뢰하고 따르겠는가? 대통령도 측근비리와 대선자금에 깊이 연루되었다면 물러나야 한다. 모든 비리 정치인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시는 정치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해야 할 시급한 당면 과제인 것이다.

정치는 국가경영의 문제로서 우리 국가의 중심영역이다. 정치가 바로 서지 못하면 경제, 사회, 및 문화 등 사회 전분야가 절대 바로 설 수 없다. 우리의

정치가 돈정치, 돈선거로 이루어져 썩은 흙탕물이 되어 버림으로써 지금 우리 사회 각 분야에는 대통령이나 장관,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을 했거나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많다. 이들이 정치에 발을 들여 놓지 않는 것은 정상배들이 설치 우리 정치가 너무나 썩어 있기 때문에 이에 오염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정치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잘못된 정치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의 일환으로 우선 정당으로서 지금의 엄청난 문제를 지닌 기존 정당은 해체돼야 한다. 「열린 우리당」도 마찬가지다. 이념과 정색에 입각한 국민정당, 전국정당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선거공영제를 실시하여 돈 안드는 선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는 형식적이고 말로만이 아닌 정말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가 이 나라에 정착되어 선진 민주정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지난 1960년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하나의 금자탑을 세운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대구 2·28학생의 거 정신을 구현하는 길인 것이다.

## 대구가 과연 수구 보수 집단인가?

이홍우 |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

### 1. 개혁에 대한 정의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개혁과 진보의 기준은 무엇인가? 진보가 곧 개혁인지 아니면 진보와 개혁은 별개의 개념인지, 이들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내려야만 우리가 토론코자 하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성향을 명확히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혁이란 기존의 것을 새로운 것으로 바꾼다(change)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과거 중세 비잔틴언어에서 변화(change)는 위험(danger)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즉, 이는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항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뜻으로 정확한 비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파멸을 초래하는 아주 위험한 일인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본 토론자는 개혁이란 비전을 갖고 변화를 추구하는 것(change with vision)이라 정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의에서 벗어난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수란 이러한 변화의 방향이 정해진 뒤를 이를 안정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며, 수구란 과거의 논리를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답습하며 고집하는 것으로 보수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 2. 개혁과 보수의 국가발전에 대한 기여도

현재 사회의 흐름 특히, 방송언론의 논조에 의하면, 개혁은 무조건 좋은 것으로 시대의 흐름이며 이와 상대되는 개념인 보수는 무조건 타파해야할 대상으로 언급하며, 보수집단은 국가발전에 장애물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시각이 바람직한 것인가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항상 그 시대에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은 특정집단이 자기들 입맛대로 문화혁명식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과 전국민들의 내적인 바람을 정확히 파악하여 국가지도자에 의하여 설정되어야 그 가치가 인정되고 전국민이 참여하는 바람직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혁과 보수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하는 것이지 지속적인 개혁이라든지 혹은 지속적인 보수는 결국 그 조직의 안정성을 해치거나 매너리즘에 빠지게 하여 조직의 쇠퇴를 가져오며, 이는 조직을 경쟁에서 탈락시키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느 논리가 맞느냐하는 것은 특정 시점에서의 상황이 무엇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는느냐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의미에서 특정 논리의 시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보수는 과거 경험에 의해 검증된 것이지만 개혁은 미래에 대한 변화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3. 대구가 과연 수구집단으로 국가발전의 걸림돌이었던가?

일부 언론이나 자칭 진보론자 중 일부에서는 대구시민들을 보수 수구집단으로 분류하면서 국가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사실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실제 1960년대 우리나라는 필리핀보다 국민소득이 낮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미국식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적합하였는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이 3000달러에서 5000달러 정도는 되어야 선진국식 민주주의를 할 만한 체력이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1960년대 초 우리의 소득은 100달러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일은 무엇인가? 경제발전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발전의 기초를 닦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이러한 일을 가장 헌신적으로 열심히 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대구·경북의 주민들이었다.

그리고 정부가 국가 발전이 아닌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부패가 난무하고 부정선거를 치를 때에 분연히 일어난 것도 바로 대구·경북의 시민들이었다. 2·28 민주화 운동이 그 산 증거이다.

1990년대 이후 모든 정권이 비전없는 개혁이라는 주제로 국가를 끝없는 혼란의 나락으로 밀어 넣는

현실에서 곳곳이 국가의 안정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버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한 것도 역시 대구·경북의 주민이지 않았는가? 만약에 대구·경북의 주민까지도 부화뇌동하여 움직였다면 과연 이 국가가 지탱할 수 있었을지 궁금해진다.

### 4. 국가발전의 단계와 국민의 행복

국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단계가 있다고 본다. 제일 첫 단계가 일단 국민들의 일차적인 욕구인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단계이다. 그러기 위해서 국가의 비전은 경제건설(잘 살아보자)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경제안정의 기틀 위에 국민의 정치적인 욕구를 슬기롭게 해결해 주는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단계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경제와 민주주의의 틀 내에서 정의로운 분배가 국민의 합의된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지사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구시민이 국가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첫 단계인 경제발전과 관련한 기여는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고, 두 번째 단계인 정치발전과 관련해 대구는 성숙된 민의로 독재가 움트지 못하도록 선거혁명을 이룩하는데 크나큰 기여를 했으며(야당 도시), 세 번째 단계인 정의로운 분배를 위해서 대구는 이기적인 집단 행동 대신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오로지 성숙된 자세로 법에 의해 우리의 요구를 주장하는 의연한 자세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대구시민은 어느 지역 주민보다 국가발전과 크나큰 기여를 해 왔다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다.

### 5.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보수 집단으로 거듭나야

지금까지 대구의 국가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대구시민들은 이제 의연한 자세로 진정한 의미에서 수구반동적인 행태를 보이는 잘못된 개혁논의(① 역대 대기업 노동자가 연간 1000만원도 못버는 노동자를 교묘히 탄압하면서 개혁이라 주장하는 잘못된 노동운동, ② 북한의 김정일을 찬양하고 북한에 돈보내는 것만이 통일본자요

개혁론자의 사명인 양 하면서 북한동포의 고통은 전혀 돌보지 않고 우리나라의 안보는 도외시하는 사이비 진보론자, ③ 비전없이 일부 젊은이들의 감정에 호소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개혁인 양 선전하는 사이비 개혁론자 등)에 대해서 분연히 일어서서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꾸짖고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을 바로잡으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보와 경쟁할 수 있는 신보수로서의 진로를 설정하여 국가 안정의 튼튼한 양대 지주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대구 · 경북의 성찰을 위한 제언

홍 덕 톨 | 대구대학교 사회학 교수

## 1. 대구 · 경북 문제의 본질

- 1) 지역감정을 부추기면서 연명하는 지역 정치권
  - 자질 부족, 함량 미달, 부도덕
  - 무책임, 낡은 냉전이념의 포로, 지역주의 사고
- 2) 중앙정치의 개혁과 지역사회의 혁신을 가로막는 지역 정치권(과 행정)
  - 중앙정치 개혁을 통한 국가발전을 발목잡아
  - 지역사회 내의 신진대사 가로막아, 결국 지역 사회 혁신에 장애
  - 유권자에 책임지는 자세 결여, 지역에서 자기 재생산하는 기득권층의 핵심
- 3) 지역주의와 수구 이념에 갇혀 있는 지역민의 배타적 의식과 닫힌 문화
  - 지역주의와 냉전 수구 이념의 포로
  -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문화
- 4) 비판적 지성(의 전통)의 고립화
  - 억압된 비판적 · 진보적 전통
  - 고립된 비판적 지성
- 5) 대학과 언론 등 지적 · 도덕적 리더십 기관의 무책임과 기능 미비
  - 비리와 부패에 물든 지역의 대학권
  - 기득권 집단에 편입되어 안주해 온 지역 언론
  - 공론의 부재와 시민사회의 미숙

## 2. 대구를 위한 몇 마디 제언

그렇다면 대구와 경북은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서는 간단히 몇 가지만 들어보고자 한다.

첫째는 대구의 정치권을 변화시켜야 한다. 대구의 정치권은 대구의 혁신을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근거이자 한국의 변화를 발목잡는 장애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정파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까지도 독점하고 있는 지금의 일당 체제로는 대구가 21세기의 시대적 요구를 감당하거나 변화를 성사시켜 낼 수 없다. 게다가 대구 출신 국회의원들의 평균 연령은 어느 지역보다도 높다. 지하철참사 수습 과정에서 보았듯이 대구의 행정이 권위주의와 무책임과 무능 행정에 빠져 있는 것도 정치적 일당 체제와 직결되어 있다. 대구의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역시 낡은 이념과 사고에 묶여 있는 정치질서와 무관하지 않다. 대구권의 적지 않은 사립대학들이 비리와 독선과 교권 유린에 신음하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낡은 정치질서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대구의 정치권은 복수의 정파가 시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정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구도로 다원화되어야 하며, 국회의원들도 시대의 흐름을 쫓아 갈 수 있도록 대폭 세대교체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지역의 언론도 함께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여타 지방 도시들과 비교해 대구는 지역 여론에 대한 지역 언론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데 반해 보수성과 반개혁성으로 인해 대구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도록 하는데 사실상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역감정을 부추기거나 특정 정파에 편향된 보도로 정치혁신과 행정개혁과 시민의식의 개혁을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지역의 대학들을 개혁하여 지역사회의 혁신을 견인해내는 혁신 전도사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대학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기술력의 섹터 역할을 수행하는 외에 지적 리더십과 특히 도덕적 권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의 비리와 교권 침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고유의 감사권을 적극 발동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 시민사회도 대학의 비리와 교권 유린, 그리고 비교육적 전횡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지역의 많은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의 어려움과 경영난을 이유로 대학 본연의 정신적·도덕적 역할을 소홀히 하거나 심지어 교권 유린과 비리에 무감각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넷째, 지역사회의 혁신을 충동하고 강제해내는 시민운동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 정치권과 지방 행정, 지역의 기업, 지역의 언론과 대학 등을 대상으로 혁신을 요구하고 강제하는 시민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참여정부가 지방분권을 강도높게 추진하기로 하면서 지역 혁신은 매우 절박한 과제가 되고 있다. 지역혁신을 위해서는 지역 대학의 개혁적 지식인과 지역의 NGO들이 주체로 나서야 한다. 아울러 지역의 NGO들은 지역민의 의식 개혁운동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다섯째, 여러 분야에 흩어져 있는 개혁 역량들이 폭넓게 네트워킹되어야 한다. 대구개혁연대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구는 어느 지역보다도 소수의 개혁 역량이 광범위한 수구세력에 의해 심취당 포위되어 있는 지역이다. 개혁의 주체들이 각 분야에 흩어져 고립·분절되어 있어서는 어느 분야에서도 개혁을 성사시킬 수 없다. 대구의 정치권과 행정계, 언론계, 기업계, 학계, 그리고 NGO 등에 넓게 포진되어 있는 소수의 개혁 역량들이 네트워킹되어 수구 연대에 대응해야 한다. 그 위에서 대구의 개혁연대는 대구 밖의 개혁 세력들, 특히 중앙의 개혁 역량과 호남의 탈지역주의 개혁 역량과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지원을 주고받아야 한다. 참여정부가 역시 개혁정권이었던 과거 김대중정부와 달리 대구의 개혁진영과 손을 잡은 것은 그런 점에서 대구의 혁신을 위해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대구의 혁신은 국가 혁신을 위한 필요조건이며, 국가 혁신은 대구 혁신의 발판인 것이다. 이제 대구의 개혁 세력에게는 외부의 개혁 역량과의 연대 위에서 대구를 변화시켜 내어, 국가 혁신을 뒷받침하는 대구, 나아가 국가 혁신을 선도하는 대구로 다시 태어나도록 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가 주어져 있다고 하겠다.

여섯째, 빛바랜 채 묻혀있던 학문과 혁신과 진보의 전통을 복원하고 그 정신을 되살려내야 한다. 폭넓게 네트워킹된 지역의 개혁 역량들이 관심갖고 책임져야 할 과제이다. 국제보상운동이나 2·28 민주화운동 뿐만 아니라, 그런 자랑스런 전통의 중심에 서있던 인물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후세에의 교육사업 등에도 나서야 한다. 의식혁신과 문화혁신의 중심을 세워내면서 지역사회의 총체적 혁신을 추진할 장기 프로그램도 가동시켜 가야 할 것이다.

## 수구논쟁 발언 요지



### ▲ 기조연설(정정길 울산대 총장)

- 대구·경북 지역은 현재 큰 위기에 처해 있다.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농업이 한국경제의 주종이었을 때에는 대구의 섬유산업 덕택에 선진적 지위를 향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고도성장기 시대에 맞게 섬유산업을 대체할 산업을 육성하지 못하고, 기술혁신마저 소홀히 하여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 상황이 낙후되어 있다. 특히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고, 자동화가 진전됨에 따라 일자리는 급속하게 감소되어 경제의 침체는 계속되고 있다. 이는 대구의 문제만도 아니고 전세계적인 현상이어서 더욱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 모두의 노력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지역의 리더들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

차적 과제이다.

정치인들이 지금의 시점에서 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쇠퇴하는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물론 일차적으로 기업인들의 책임이다. 하지만 이를 위하여 막대한 경비를 분담하거나 지원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얻어내는 일 등은 기업의 능력을 초과하는 것들이다.

또한 인재의 육성을 위해서도 힘써야 한다.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지식과 국제적 감각을 지닌 인재들이 계속적으로 육성되지 않으면 세계화의 흐름에 발맞추기 어렵다. 전문 지식을 넘어서, 외국어 실력은 물론이고 문화 예술에 대한 국제적 감각도 갖추어야 한다.

이상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정치적 리더들이 지역주민의 힘을 결집하여 추진하여

야 한다.

그러나 지역의 정치는 지역분계 해결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수동적인 역할만 하고 있다. 지역의 정치권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대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거나 제시하지도 않았고, 선거 때에만 형식적인 구호를 내거는 상황이 되풀이되어 중앙정부의 지원도 극히 저조한 상태가 계속되었다. 오히려 행정기관이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을 대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것 역시 시민들의 대대적인 참여와 지식인들의 다양한 견해, 심각한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바람직한 꿈으로만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대구·경북지역의 잘못된 정치풍토는 지역주민들의 불건전한 정치의식에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정치의식상의 공황은 경제 사회적 문제와 맞물려 더욱 파멸적인 혼란을 맞이할지 모른다. 이는 선진국의 사례에서 확인된다.

지역 정치권의 발전을 위해 냉소적 비판, 부정적 무관심을 극복하고 개척적 진취성과 긍정적 참여를 내면화하는 정치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치의식개혁은 정치인을 포함한 지역 엘리트들이 주도해야 하지만, 시민들에 대한 설득을 통하여 모두가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 다른 한편으로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고 정치적 지도자로 훈련시켜야 한다. 낡아 빠진 수구나 진보의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리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키워야 한다.

지금의 정치발전 방향을 논함에 있어 새롭고 특출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없다. 이미 그 패러다임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이제 남은 일은 편견과 아집을 버리고 대의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행동하는 것 뿐이다. 그것이 2·28정신을 살리는 길

이다.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 헌신적으로 대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 ▲ 김석수(경북대 철학과 교수)

- 대구가 보수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부여받은 시기는 아마도 5·16군사쿠데타 이후에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승만 정권하에서의 보수 반공주의를 깨고 나온 것이 2·28민주학생운동인데, 이는 역설적으로 5·16쿠데타를 탄생시키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즉 지역 학생들이 벌인 진보의 운동은 이 지역 군인에 의해서 주도된 군사쿠데타로 소중양주의로 되돌아왔다. 이후 약 30년 동안 이 나라의 보수 반공주의의 원산지가 된 것이다.

우리 사회의 진보의 가장 반대편에 자리하고 있는 지역이 넓게는 영남지역이며, 좁게는 대구·경북 지역이다. 이제 우리는 지역권력을 중앙권력화하여 중앙권력을 소유하는 주체가 아니라 중앙권력의 부당함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중앙 없는 권력'을 형성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사회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지역 정치권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지역행정과 언론의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의 측면에서도 지방을 위한 인재 육성을 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앙에 대한 항수를 벗어 버리고 지금의 서울중심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지역들 사이의 연대성 모색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 ▲ 김일수(영남대 역사학과)

- 수구세력이란 어떤 특정한 모순된 정치 상황에서 어떠한 이익을 누리고 있던 세력을 말한다. 대구의 수구세력은 일정한 역사성을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5·16과 같은 특정한 시기를 수구세력의 형성시기로 설정하는 것은 외부적 요인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비취질 수 있다. 물론 5·16이 수구세력 형성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근대사 전개과정에서 대구의 수구세력의 형성을 찾고 증폭되는 계기를 찾는 것이 수구세력 논쟁의 해결에 있어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 김희곤(안동대 사학과 교수)

- 진보와 보수는 양자택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전적인 개념만을 보더라도 진보만이 아니라 보수도 발전논리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사를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적으로 평가하는 태도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진보나 보수 모두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보수성이 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악이 아니라 발전의 한 유형이다.

#### ▲ 이영환(한국사회과학연구원장)

- 수구세력과 중도 보수세력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수구세력은 정통성 문제 등 과거의 잘못된 권력에 영합하여 현재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세력이며, 중도 보수세력은 이념적으로 민주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갖는 모순을 점진적으로 고치나가려는 세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세력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우리의 정치현실을 보면 선거에 있어 「사람」이 변수가 돼야 함에도 「돈」이 변수가 되어 정경유착 및 부정부패가 필연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행태로는 나라를 바로잡을 수 없다. 이제는 형식적이고 말로만이 아닌 정말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가 이 나라에 정착되어 선진 민주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이홍우(경북대 경영학부 교수)

- 개혁이란 비전을 갖고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보수란 이러한 변화의 방향이 정해진 뒤에 이를 안정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며, 수구란 과거의 논리를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답습하며 고집하는 것으로 보수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개혁의 올바른 추진을 위해서는 지도자가 개혁적인 정신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혁은 정치·행정지도자의 몫이다.

지도자들은 우선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여야 한다. 또 개혁의 내용은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수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측정이 가능해야 할 것이며, 개혁의 추진에 있어 그 시기가 적절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 홍덕률(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 보수와 진보의 개념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에 의해 상대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세계에 불어닥친 변화의 물결은 막을 수 없는 시대의 조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90년대 이후부터는 정권에 상관없이 변화의 물결에 대응하기 위한 고민을 계속해 왔다. 개인은 물론 기업, 지역 모두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인 것이다. 변화의 고통은 분명히 따르겠지만 이는 꼭 헤나가야 할 것이다.

과거 청년의 2·28 선배님들의 모습은 나에게 분명 존경의 대상이다. 하지만 지금의 2·28 선배님들은 죄송스럽지만 나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순수한 청년의 정신은 어디에 갔는가. 우리 지역이 이렇게 어려워질 때까지 어디에 계셨는가?

▲ 정정길(울산대 총장)

- 현시점에서 보수와 진보의 논란보다는 극복의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홍

덕률 교수의 논의처럼 2·28은 아름다운 것이다. 청년시절이었기에 가능했고, 더욱 아름다울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경제가 크게 성장함으로써 2·28의 정신도 많이 수그러졌다. 2·28 세대들도 여러 갈래로 갈라졌다. 하지만 가슴 속에는 아직 2·28의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 이해두(대구대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

- 여러 전공자들에 의해 여러 각도로 지역문제를 조명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쉽게 생각하면 진보는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고 보수는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진보는 항상 옳고 보수는 항상 틀린 것인가? 그렇지 않다. 옛것 중에 나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지키는 것은 좋은 의미의 보수이고 이것은 꼭 필요한 행위이다. 또 나쁜 변화를 추구하는 진보는 좋은 보수만도 못한 것 아닌가! 상황과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보수·진보의 개념을 놓고 시비를 다루는 것은 시도 자체가 옳은 일이 아니다.

이제는 추상적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어떤 들, 어떤 원리를 통해 지역을 발전시킬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대구의 물줄기, 신천

편집자 = 서울의 청계천 복원공사가 시작되면서 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대구는 다른 도시에 견주어 하천이 많은 곳이고, 지금도 대표적 하인 신천이 도심을 가로지르며 흐르고 있다. 신천 정비사업이 벌어지면서 신천의 모습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올해 매미가 대구를 휩쓸고 지나면서 신천도 그 여파의 중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때문에 신천의 양쪽을 덮은 시멘트구조물은 상당 부분 파괴되었고, 하류쪽은 흙과 돌로 가득 매워져 버린 실정이다. 대구의 상징적 물줄기인 신천은 어떤 모습으로 정비해야 할까. 우리는 그 대답을 얻기 전에 신천의 역사와 그 역사가 품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 대구의 지형과 자연의 어울림

대구의 지형은 분지로서 그 규모나 형태에서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분지에 속한다. 분지 안을 흐르는 낙동강과 그 지류 금호강이 형성한 평지나 구릉성 완만한 경사지가 분지에 넓게 펼쳐져 있어 대도시로 발전하는 데 매우 좋은 지형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대구분지는 남부산지, 북부산지, 중앙부와 서남부 저지(低地)로 이뤄져 있다. 북부산지는 거대한 팔공산과, 남부산지는 비슬산과 용지산과로 이뤄져 있다. 남부와 북부의 산지 사이에 해당하는 동서방향으로 넓은 중앙부와 낙동강 연변의 서남부는 거의 대부분이 평야이고, 곳곳에 구릉성 산지가 분포하고

있다. 곧 낙동강과 그 지류인 금호강 및 이에 유입되는 신천과 팔거천 주변에는 범람원 성격의 넓은 충적평야가 발달해 있다. 중앙부의 일부 지대는 준평원상의 침식평야와 두리봉(215m)·형제봉(196m) 등의 구릉성 산지로 형성되어 있다. 서쪽의 일부 지대도 준평원상의 침식평야와 두류산(131m)·와룡산(300m)·궁산(253m) 등의 구릉성 산지로 형성되어 있다.

대구에 넓게 펼쳐진 충적평야는 분지상의 북쪽에서 동에서 서로 흐르는 금호강 범람원과 남부산지에서 발원하여 분지상을 이루는 동서로 나누며 북쪽으로 흐르는 신천범람원이 주를 이루며 이 두 범람원이 T자형으로 합쳐진다. 그 사이에 옛날 대구성이 자리를 잡았다.



▲ &lt;대동여지도&gt;의 대구지형지세도

### 대구천이라 부를까 신천이라 부를까

신천(新川)은 대구의 중심부를 남북으로 가로질러 흐르는 25개시역 하천중 대구에서 가장 크며 대표적인 하천이다. 조선시대에 대구의 지도를 보면 대구의 물길의 잘 표현되어 있으며, 근대적인 지도가 발행되는 20세기 초의 대구지도에는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대구에는 이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크고 작은 물길이 거미줄처럼 얽혀져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대부분은 복개되어 있어 대구에 오

래 살지 않은 사람들은 대구의 하천이 많았다는 것 잘 모른다. 예를 들면, 대명천, 달서천, 뱀어천, 방촌천 등이 그것이다.

신천의 명칭은 어떻게 나왔을까. <<경상도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에 "신천은 대구부 동쪽 4리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에 따라 신천은 조선 후기나 그 이후에 나타난 명칭은 아닌 것이다. 또 다른 기록에는 대구천이라는 명칭이 나온다. 때문에 신천과 대구천이 동시에 각각 다른 물길을 형성한 것인지 아니면 같은 물길이나 이름이 다르게 불리게 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렇지만 대구천과 신천은 서로간에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여기서는 오늘날 신천과 구별하기 위해 편의상 옛 물길을 대구천, 지금의 물길을 신천으로 부르고자 한다.

대구천의 발원지는 여러 설이 있을 뿐 한강의 점룡소, 낙동강의 황지 등과 같은 곳이 어디인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대구천을 거슬러 올라가면 비슬산의 팔조령, 비슬산 험터계의 정대골짜기와 만나게 된다. 이곳에서 시작된 물길이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주변의 산에서 내려오는 물길을 만나 점점 큰 물길을 만들어 나가게 된다.

지금 신천의 물길은 인공제방에 의해 고정되어 있으나 옛날에는 동서 범위 안에서 여러 번 물길을 바꾸며 흘렀다. 대구천의 측방침식으로 형성된 낮은 절벽이 지금도 곳곳에 남아 있는데 수도산 동쪽과 건들바위쪽으로 연결되는 절벽이 대표적인 것이다. 달

서천은 한때 신천이 서쪽으로 치우쳐 흘렀던 시기의 옛 물기의 흔적이다.

풍수에서 하천은 기의 흐름과 연관되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우선, 성종 때 대구부사였던 최호원은 대구의 지형지세를 비보하기 위해 하천의 물길을 논밭으로 하다가 그 과정에서 일부 백성들과 유학자들의 민원을 일으키게 되어 파직되었다고 한다. <<성종실록>>에 따르면 최호원은 농사철에 혼란을 빚자하여 군대를 동원해 제방을 쌓은 일로 민원을 일으켜 파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곧 제방공사로 인해 자신들의 토지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민원을 일으켰던 것이다.

또한 대구천은 당시 대구읍성 바로 앞을 남서쪽으로 스치듯 흘렀기 때문에 여름 장마철이 되면 하천 주변의 논밭은 물론이고 대구성 안까지 물이 넘쳐흘렀다. 심지어는 대구성 동문 밖에 있었던 향교도 물에 잠기는 수난을 겪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상동교와 중동교 일대의 너른 들판과 가옥에도 장마철이면 어김없이 물이 넘쳐 많은 피해를 주었던 것이다.

대구천이 자주 범람하게 되자 1789년 대구 판관이서가 대구천의수로를 현재의 용두모에서 신천으로 물길을 돌리는 대대적인 토목사업을 벌였다. 그 결과 대구부의 서쪽에는 새로운 주거지와 상업공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특히 하천을 경계로 나뉘어져 있던 달성과 부성이 연결되었다. 그는 하천이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동교 근처에 둑(제방)을 쌓아 대구천으로 유입되는 물길을 막음으로써 수해를 크게 줄였다. 이에 주민들은 그의 공적으로 기리기 위해 중국 송나라 소식(蘇軾, 1036-1101)이 항주 자사로 있을 때 축조한 둑을 소공제라 이름한 것을 본따 이공제라 부르고 이듬해 비를 세워 그를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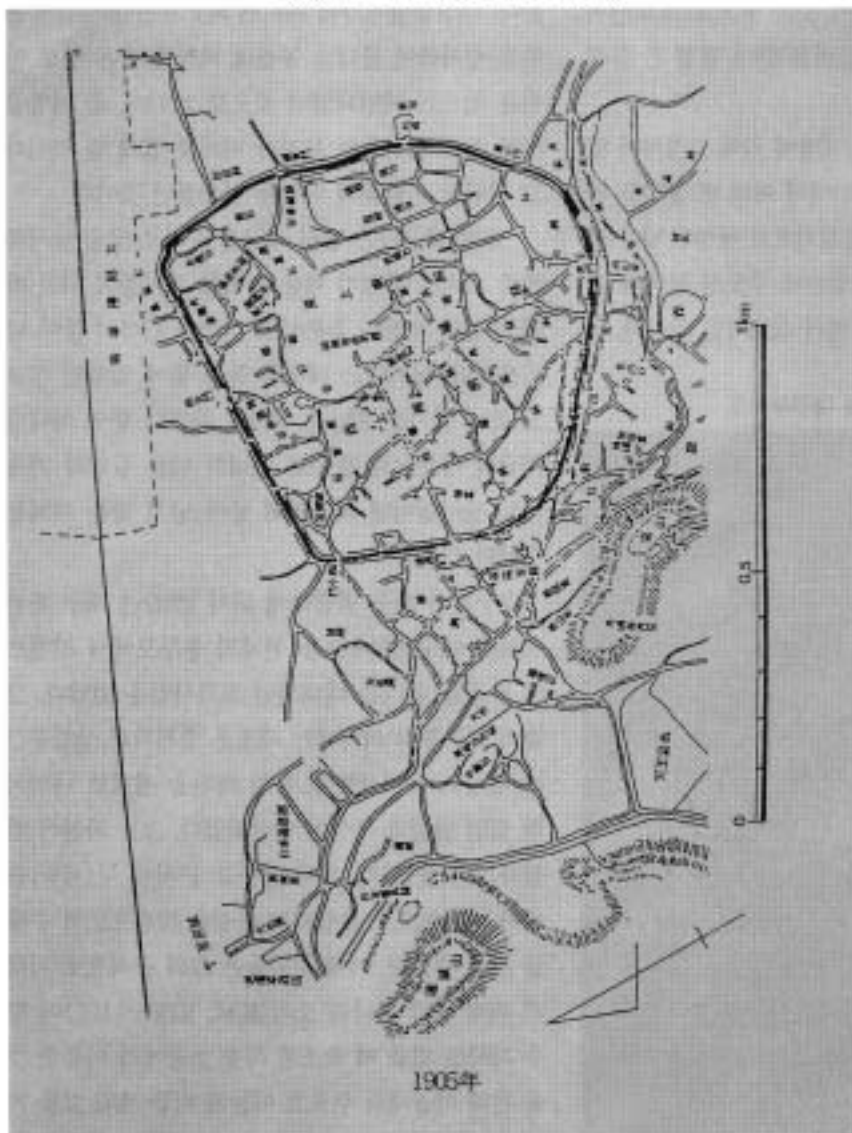
▼ 조선시대 대구부지도



렀다.

그로부터 100년 뒤인 1898년(광무 2)에 대홍수가 일어나 신천독인 '이공제'의 하류 부분이 무너지게 되자 그때 대구군수 이범선(李範善) 재빠르게 보수하였다. 군민들은 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비자를 건립하고 이공제비와 함께 세웠다.

▼ 1906년 대구지도(굵은 선은 대구성)



### 신천은 근대 시기에 어떻게 바뀌었을까

지금의 반월당 부근 염매시장과 적십자병원 사이의 대로에는 물길이 있었고, 그 물길이 계산성당을 앞을 지나 오토바이 골목으로 이어졌다. 염매시장 앞

물길을 건너면 노하리, 곧 길 아래 동네라 불러 저지대를 형성하였고, 그 위를 향해 오르면 아미산이며 아미산 동쪽 편에는 연귀산이 마주하였다. 얼마전 약전골목, 곧 남성로 일대에서 대구성의 성벽들이 나왔다며 그 흔적을 찾기 위해 발굴을 시도했을 때 물가의 있을 법한 돌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던 것을 볼 때 대구의 옛 물길이 흘렀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의 서문시장은 1923년 당시 식민지시대 대구부청의 정책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시장이었다. 시장이 들어 서기 이전 이곳은 천왕당이라는 이름의 못이었고 이 못의 물은 지금의 달성공원 앞으로 흐르던 물길과 연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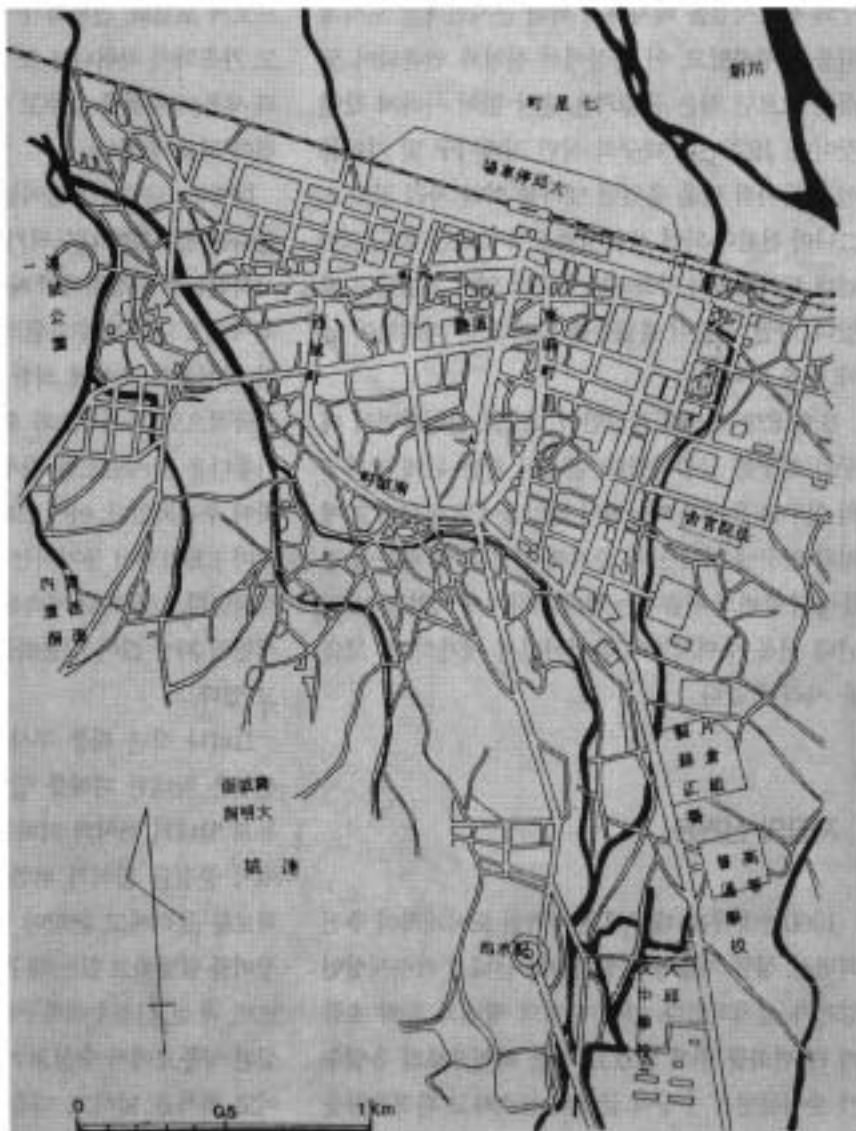
있었다. 또한 신천의 물길과도 연관이 있었다.

이를 식민지시대에 발행된 지도를 통해 알아보면, 대구 분지를 관류하는 하천에는 신천 외에도 중구를 거쳐 지나가는 작은 하천들이 흘렀음을 알 수 있다. 고선골과 봉덕동의 구릉지에서 발원하여 이천동, 봉산동의 건물바위 앞을 지나면서 두 갈래로 갈라져서 흘러내렸음을 볼 수 있다. 두 갈래 가운데 한 갈래는 유신학원 네거리, 중앙도서관, 대구시청 옆을 지나 칠성시장을 통과한 다음 경대교 가까이에서 신천에 유입되고 다른 한 갈래는 건물바위를 지나 덕산동의 구릉지 가장 자리를 돌아서 반월당 네거리, 계산성당 앞을 거쳐 동산 아래에서 합류한 다음, 인교동을 지나 달성공원 앞에서 다시 내당동, 비산동 구릉지로부터 흘러나온 하천과 합류하여 침산동에서 금호강으로 합류한다. 그러나 지금은 봉덕동과 이천동에서 흘러 내렸던 물길은 모두 자취를 감추어 버렸고, 대명동, 남산동 구릉지에서 흘렀던 물길만이 복개되어 하천의 기능

을 아쉽게나마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또한 도시계획과 관련된 법령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토랑이나 시공창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처럼 신천의 물길은 비슬산에서 발원하여 금호강으로 흐를 때까지 여러 번 물길을 바꾸며 오늘날 대구의 중심부를 관통하였다. 신천 물길의 변화는 조

▼ 1924년 대구 교통 지도(굵은 선은 대구의 물줄기 형)





선후기부터 시작되었으나 근대에 들어오면서 더욱 빠르게 바뀌었던 것이다. 이에 신천의 변화는 대구 지역에서 대구의 근대유적의 현상이기도 한 것이다. 곧 근대의 변화와 신천의 물길도 바뀌었고 물길 주변의 거리와 공간의 의미도 크게 바뀌었던 것이다.

일제가 한국침략을 강화하고 대구에도 일본인이 장악하는 식민도시로 재편되어 갈 때 증가하는 인구와 산업시설을 배치하기 위해 근시안적인 도시계획을 실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신천과 연관되어 도심을 흐르던 작은 물줄기는 흔적 없이 사라져 갔던 것이다. 1920년대 대구의 식민 지배기구 및 기관들이 건물바위 옆을 흘렀던 냇가를 따라 자리 잡았고, 그나마 건천이 되어 겨우 명맥을 유지하던 것도 1930년대 도시계획이 강화되면서 흔적 없이 소멸되고 말았다. 다만, 물길이 흘렀음을 알려줄 큰 바위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또한 6·25전쟁때 피난민이 대구로 몰려들면서 대구의 인구는 급증하였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대구의 인구는 돌아간 피난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인구에 비해 크게 증가해 있었다. 이 때문에 건물바위 주변의 저습지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1960년대 신흥 주택지역이 들어서면서 냇가의 옛 모습은 사라져 갔다.

## 지금의 신천은

1960년대 후반 대구에 본격적인 도시계획이 추진되면서, 상류 가창댐이 설치되고 근대적 하수시설인 암거가 설치되었다. 이에 하천의 형태와 물의 흐름에 큰 변화를 주게 되었고, 작은 하천으로의 유입수가 줄어들면서 수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환경용량을

초과하는 오폐수가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하천의 자정작용은 상실되었다.

1970년대에는 시내를 관통하는 대부분의 작은 하천이 복개되어 주차장이나 도로로 바뀌었고, 복개된 하천은 하천이라기 보다는 하수도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소하천으로 유입되던 하천수도 도시의 지하수위 저하로 인해 신천으로 오기 전에 모두 흡수됨으로써 오염화, 건천화가 심화되었고 신천의 황폐화도 가속되어 악취나는 도심하수도로 바뀌어 물고기와 새들이 자취를 감추고 시민들로부터 버림받는 하천이 되고 말았다.

다행히 1980년대 접어들어 자연 하천을 회복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곧 악화된 도시하천환경을 정비하여 자연하천으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나아가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하천공원 조성에 의한 시민 휴식처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도시구조와 환경개선에 의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면모를 갖추기 위해 신천종합개발계획이 추진되었다. 이에 198년부터 1994년까지 총사업비 139억원이 투자되는 [신천종합개발사업]을 실시되었다. 그후에도 계속된 신천 정비사업으로 대구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태풍 루사와 올해 메미의 영향으로 신천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특히 수성교에서 상동교 일대의 둔치의 피해는 더 컸다. 이에 복구방향에서 물길을 넓히기 위한 치수와 시민의 휴식공간 확보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신천의 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대구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우선 신천수해복구를 위해 둔치가 심하게 유실된 상동교에서 수성교 사이의 구간은 둔치복을 줄이고 하폭을 넓히고, 다음으로 피해가 자주 발생하



는 지역은 하천에 산재한 골재를 사용하여 차후 피해를 최소화하고, 마지막으로 매년 홍수시 둔치의 공원시설물에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둔치를 조성·관리할 방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경전문가들은 "이번 수해가 자연성을 파괴하고 인공적으로 손을 댈수록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인간에게 되 돌아온다는 자연의 이치를 깨닫게 해 준 것 같다"며 "앞으로 자연을 자연 그대로 두면서 자연을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복원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의 청계천을 볼 때 하천의 유지와 관리 방식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다. 물론, 청계천 복원이 이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차치하고

서도 인간의 자연 이용 방식에 대해선 많은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구의 역사와 함께 해온 신천, 그것과 연관된 작은 물길이 근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라져간 것을 고려할 때, 단순히 신천의 정비와 복구가 자연적인 질서의 회복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적 가치와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크게 눈을 떠야 할 것이다.

▶ 참고 자료

- 대구매일신문
- 조선사연구회편, <<조선시대 대구의 모습>>,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2.
- 대구중구문화원, <<건들바위>> 1,2,3집.
- 대구시설안전관리사업소의 신천관련 자료

## 겨울 개은사

장혜량\*

개은사가 저기쯤 보이자 생각지 못한 웬 눈물이  
추루루 흐릅니다. 누워 있는 마음 한 가지 꺾어 나무란 적  
없는데 아무 뜻 없이도 인체는 돌연변이 현상을 만듭니다.  
어느 전생 장작 패던 불목하니였던 내가 고향 찾은 듯  
반가워 그런가 봅니다.

낮은 하늘 그렇그렇 질긴 껍질 벗는 눈송이들  
한 생을 비워내도 끝지 못한 낙엽 위로 쌓이고  
우주를 한 바퀴 돌아온 지친 바람 지금 막 대응전을  
들어섭니다.

깊은 산속 오래 갇혀 있고 싶은 계곡물  
오늘도 박힌 돌들을 돌아 흐르고 물을 돌아가게 하는  
돌을 그 때도 많이 나무랐나 봅니다.  
부모같이 낮익은 코 없는 석불 앞에 서자 어깨 등을 쓸며  
어디 갔다 이제 오나 분분히 내리는 눈송이 시켜  
묻고 또 묻습니다.

무리진 바람 속 추운 밖을 내다보는  
내 마음의 붓이 쓰내려가는 길 이처럼 멀어  
어느 귀한 여인의 귀걸이 같은 절집의 풍경만 동으로  
한번 땡그랑 서로 땡그랑 우문현답 하듯  
감기다 풀리고 풀리다 감기고 전생처럼 다시 찾아올  
그때도 이유없이 흐르는 눈물이 모자라는 대답일지 모릅니다.

\* 대구출생, 96년 현대문학 등단, 대구시민협회 회원

## 2004년도 정기총회 초청의 말씀

희망찬 갑신년(甲申年)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회 2004년도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2·28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공동의장 이 완 식

- 일 시 : 2004. 1. 8(목) 11:30
- 장 소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2층 강당(국제보상기념공헌연)
- 회 순 : - 개회
  - 국민의례
  - 감사패 수여
  - 공동의장 인사
  - 대구광역시장 축사
  - 감사보고
  - 의안심의
  - 기타
  - 폐회

※ 총회 직후 세계화페전시관 관람과 오찬이 있을 예정입니다.  
(주차가능)

### 김정길 2·28부의장 제4회 TBC 자랑스런 大慶人 大賞 수상 - 대구예술인상 특별공로상 수상도 -

지난 12월 18일 TBC대구방송국에서 본회 김정길 부의장(매일신문 부사장)이 제4회 TBC 자랑스런 大慶人 시상식에서 大賞을 수상했다. 김부의장은 그동안 문화, 예술, 언론 등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12월 2일 심사위원회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었다.

또한 지난 10월 20일에는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예술인상 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 김부의장은 그 동안 채외 및 국내 문화고류 사업에 주력한 공로로 특별공로상을 수상했으며, 대구예술인상은 지난해 한국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대구지회가 대구예술의 오늘에 있기까지 공로 인물과 단체를 선정, 두번째 시상식을 갖게 되었다.



## 강북사랑시민모임

정순환 | 운영위원장

강북사랑시민모임(이하 감사모)은 강북(철곡)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1년 11월에 공식 창립되었다.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감사모는 '살기 좋은 강북 우리 다 함께' 라는 슬로건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쾌적한 강북건설을 그 목적으로 하며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진정한 주민자치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강북지역은 신도시 지역으로 대구시의 타 지역에 비해 교통, 주거, 교육환경 등에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떨어지고, 스스로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감사모는 지역주민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 파고들어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활동을 해왔다. 이는 시민운동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진일보한 지역사회를 건설하는 새로운 모델이며 동시에 시대적 소명이기도 하다.

그동안의 활동을 살펴보면 매천대로 무료화 운동, 강북 어린이날 큰잔치, 공공도서관 건립추진운동, 어린이 축구교실, 여성열린학교, 선생님과 함께하는 독서교실, 지역민을 위한 역사문화기행 등 다양하고 폭넓은 일들을 진행해왔다.

이 중에서도 공공도서관 건립문제는 강북지역 전체주민의 숙원사업이라 할 만큼 그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이 지면을 빌어서 따로 소개해 본다.

인구 30만에 육박하는 대형 주거도시 안에 아직도 공공도서관이 하나 없다는 것 자체가 강북지역의 열악한 문화·교육 환경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도서관 건립운동을 꾸준히 펼쳐왔고, '강북(철곡)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위'를 구성하여 공동 활동을 해오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의 성과가 모여 도서관 예정부지도 정해지고, 북구청장의 도서관 건립약속도 받아내었으나, 아직도 제대로 실행된 것은 하나도 없는 상태이다. 도서관 건립을 촉구할 때 마다 예산을 핑계로 미루기만 해왔던 것이다. 이에 도서관 추진위는 제2기 추진위를 새롭게 재구성하여 보다 강도 높은 도서관 건립운동을 펼쳐갈 예정이다. 공공도서관 건립운동을 지역의 어린이 도서관이나 마을 도서관 신설운동과 병행하여 지역의 문화운동 차원으로도 승격시켜 나갈 생각이다. 아울러 도서관 건립운동의 일환으로 독서릴레이운동, 1인 1구와 갖기 운동도 함께 하고 있다.

강사모의 정기적인 사업으로 진행해왔던 독서교실, 축구교실, 여성열린학교, 역사문화기행 등도 지역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여성열린학교는 지역의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여성들의 교양과 사회참여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어찌 보면 단체의 역량을 넘어서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다양한 활동이 단체의 전문성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해서 내년부터는 지역주민운동으로 좀더 파고들어볼 예정이다. 많은 시민운동단체들이 주민운동의 절실함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막상 실행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또한 주민운동이 아닌가 싶다. 그만큼 아직 토대가 취약하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앞으로 강사모가 주력해야 할 운동의 방향이 주민운동이고, 이에 대한 훌륭한 모델을 만들어보겠다는 꿈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들과의 잦은 접촉을 통해 회원확대도 하고, 주민운동의 틀을 조금씩 다져나가 볼 생각이다.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에 와있는 강사모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조직구성 —————

- 상임대표 김태환
- 공동대표 조현걸
- 운영위원장 정순환
- 조직국장 김인환
- 사업국장 이근원
- 사무국장 박상국
- 편집실장 황동구
- 간 사 김순규





## 시민공원의 이름 먼저 이런 기록부터 알리고 계속해 보자

석귀화 | 수필가, 경북고 교사

“독재정부 불합리를 방관할 수 없다. 땅을 치고 통곡하는 이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의 주장 관철을 위해 한사코 노력하자.”

고 분연히 외치는 그를 중심으로 도청에 운집해 있는 시위대에 경찰 병력이 투입되었다. 학생들은 도청 정문 쪽으로 달아났다. 경찰봉과 구두발질에 65명이 붙들려 경찰국으로 연행되었고 빠져 나온 250명의 학생들은 다시 대오를 짜고 시청을 향해 행진을 시작했다. 연도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 응원을 보냈다. 대오가 자유당 경북도당사에 이르렀다.

이 학교에 처음 부임해 와서 역사관이란 곳을 보았다. 교무실 바로 위층에 있는 그곳에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하던 차에 어느 정도 학교 분위기가 눈에 익자 내 호기심은 발동했다. 이미 아는 그렇고 그런 유명 사진들과 흔적들이 있었다. 관심 분야가 아무래도 글 쪽이라 교지를 찾았고 열람된 교지 옆에 얹전히 먼저 쓰고 누운 '경고 80년사' 책자가 눈에 띄었다. 책을 뒤척거리다 2·28이라는 글자를 보았다. 한자투성이 글, 문서보존형 책이었지만 2·28당시의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위에 적은 내용이 바로 그 책 속에 있었던 것이다. 그 뿐 아니라 2·28관련 자료, 사진, 당시 신문 사설 등 자세한 것들이 같이 실려 있었다.

이 학교가, 그런 일과는 도무지 무관할 것 같았던

이 학교가 그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공부만 시키는 수재학교가 민주화라는 그런 일에도 자발적으로 관여했다니... 나 같이 호기심 많고 쓸데없는 것까지 잘 알고자 하는 호사가도 몰랐던 일이다. 조선시대에, 견훤은 모르면서 중국 전국(全國) 7웅의 이야기는 환했던 사대부들처럼 제 지역에서 방금 전에 일어났던 일조차 모르면서 서울에서 일어난 이야기는 꿰고 있었던, 어리석은 인간이 또 하나 있었던 것이었다.

지금은 두류공원으로 옮겨졌지만 10여 년 전까지 명덕로타리에 2·28기념탑이 있었다. 나는 그 운동에 대해 자세하게 들여보지 않았다. 우리 선배들이 관여했고 당시 대구의 고등학생 대다수가 참여했던 운동이라고 힘주어 설명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었다. 아니 나와 연배가 비슷한 사람들이나 우리 친구들 역시 그런 것을 배운 바도 그런 내력을 선생님 훈화로도 들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 4·19 민주운동이 있었고 그로 인해 제1공화국 정권이 무너졌다는 상식 정도밖에 몰랐다.

책은 종기가 끊어터지려면 누군가가 바늘로 찔러 주어야 한다. 그냥 터지기를 기다리면 시간이 더딜 뿐 아니라 그 사이 삶은 계속 썩어 간다. 환부가 깊어지는 것이다. 누군가 바늘의 역할을 한다는 것, 그 바늘로 종기 부위를 찌르는 간단하면서도 엄청나게





어려운 용기 있는 행동이 철없는 것 같은 고등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 이걸 놀라운 일이다.

남들이 개척해 놓은 길 따라 하기는 쉽다. 또 터뜨려 놓은 고름 짚아내기 쉽다. 인제나 처음이 어려운 법이다. 그래서 사회는 원조와 선구자를 대접한다. 불과 보름 후에 마산 3·15 사건이 일어난 사실만 봐도 그러하고 이로부터 또 한 달 남짓 후에 4·19가 터진 점을 봐도 그러하다.

이 최초의 시발이 된 운동, 이것이 대구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은 대구시민 모두가 긍지를 가져도 좋은 일이다. 지금같이 인터넷이 발달하여 빠른 연락 수단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전화가 발달했던 시절도 아니었다. 해도 너무 한다는 각 가정에서의 정부에 대한 비판, 신문에 난 사실들을 어른들을 통해 귀동냥했던 청소년들이, 서슬 퍼렇던 시기에 일제 아닌 독재에의 저항방식을 전국민들에게 처음 제공한 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어린 학생들의 저항이 아니라 그들을 키우고 그들이 배웠던 당시 대구시민 모두의 저항으로 봐야 한다. 이것이 바로 대구 2·28운동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처음 시작한 곳, 독재에의 저항 의지를 꺾을처럼 쳐들고 고등학생들이 뛰쳐나갔던 바로 그 사건이 2·28이었다.

가장 가까이에서, 나와 비슷한 시대의 학생들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점에 독재에 항거했다는 사실은, 유신 때는 대학생이었고 광주항쟁 때는 교직에 있었으면서도 조국을 위해 아무 한 일이 없이, 혼자 살 하나도 감당 못해 허겁지겁 살아온 세월을 부

끄럽게 만들었다.

나는 옛날에 경북고라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모였던 곳, 그래서 졸업 후 상류층 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명문학교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중 하나였다. 그런 내가 이 학교에 근무하면서 생각이 참으로 많이 바뀌었다. 중요한 역사적 시기마다 이 학교 학생들의 참여가 있었다. 3·1운동 때는 만세운동을 했다가 강제퇴학 당한 학생도 있었고, 어린 나이에 6·25에 참전하여 아깝게 희생된 사람도 있었다. 고회를 맞은 졸업생들이 6·25 때 죽은 친구를 잊지 못해 그의 영전에 바친다고 글을 모은 문집에서, 1960년 당시 옛된 소년의 얼굴을 보았을 때, 단위 학교의 역사라고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의 삶과 따로 떼어 생각할 수는 없으며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그대로 한 나라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새삼 절감했다. 50여 년 세월이 흘렀어도 70세 된 노인과의 사진 속의 옛된 소년은 친구인 것이다.

지금 공원이름을 2·28로 하네 아니네 시끄럽다. 중앙청소년 공원으로 하든 2·28공원으로 하든 나는 상관없다. 거기 놀러갈 것도 아니겠고 애뜻한 사연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이름을 정할 만큼의 위치에 있지도 않다. 다만 하나 말하고 싶은 것은 살아 있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성에 대한 현저한 좌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사는 죽이지 말고 잊지도 말고 살려내어 가지고 누리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한없이 풍부한 정신적 풍요를 선물한다는 점이다. 즉, 우리들을 위해 역사는 필요한 것이다.

## 제6차 2·28민주포럼

## 대구·경북 지역의 수구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11월 10일 사단법인 2·28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공동의장 이완식) 주최로 「대구·경북지역의 수구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로 제6차 2·28민주포럼이 대구은행 본점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조해녕 대구광역시장, 정정길 울산대 총장 등 단체장, 학계, 언론계, 시민, 학생 등 350여명이 참석한 이날, 이완식 2·28공동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가 오늘 이 지리를 함께 한 것은 우리 역사의 진보적 발전을 위해 노력한 지역의 전통을 다시 살리고 계승하기 위해서라고 전제하고 세계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지역민들의 진취적인 정신을 목격하고 있는 '수구세력'이라는 인식은 하루 빨리 극복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일 것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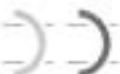
또한 대구는 국채보상운동의 전원지이며 2·28민주학생운동이 일어난 고장이라면서 대구의 시인 이상화는 암울한 일제 치하에서 국토의 아름다움과 저항의 의지를 시화(詩化)했고, 안동의 시인 이육사는 가혹한 일제의 탄압에도 독립투쟁이 의지를 결코 꺾지 않았다는 것을 대구·경북지역이 결코 '수구세력'의 본산이 아님을 웅변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2·28민주학생운동이 4·19의 도화선이 되어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혁명을 이끌었던 것처럼, 지역에 애정을 가진 지식인들이 모인 토론회가 대구·경북지역을 '수구적'으로 보는 내·외적 편견을 없애고 진보적이고 민주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지역의 정체성을 찾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어서 조해녕 대구광역시장은 축사를 통해 계절의 변화와 함께, 중앙정치가권이 혼미를 거듭하는 가운데 사회 구성원간 가치관의 대립과 갈등의 고조 등으로 우리 사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스산하게 하고 있다면서 언제나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 이 나라 사상과 학문의 구심으로서 나라가 축복한 시련과 위기를 겪을 때마다 국난극복의 중심이 되었던 대구·경북을 반개혁신적이며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된 수구세력의 본거지로 규정짓는 일부의 편향된 시각이 지역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때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한 몸을 던지며 한국현대사에 큰 획을 그었던 2·28민주운동의 주역으로서, 수구논쟁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통해 미래지향적 사회 동질성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참으로 의미있게 생각한다 고 했다. 또한 '개혁'이라는 시대적인 화두에 몰두하고 있는 지금 개혁과 반개혁, 진보와 보수간의 치열한 이념논쟁 혹은 가치관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개혁에 대한 지나친 열정으로 개혁의 방향성을 상실하거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추지 못한 채 변화와 개혁만을 부르짖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면서 원효



▲ 제6차 2·28민주포럼에서 인사말하는 이완식 2·28공동의장



◀ 제6차 2·28포럼에서 조해녕 대구광역시장이 축사를 했다.

사상과 선비정신,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의거를 통해 우리 지역에 면면히 이어져 오는 자유와 자주, 민주, 민주의 대구정신은 결코 반개척적이거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수구주의가 아니며 오히려 새로운 시대에 국가와 지역발전을 책임있게 이끌어갈 올곧은 시대정신이 될 것임을 믿는다며 편견과 대립, 갈등을 해소하고 진보와 보수 모두가 미래 지향적으로 상호협력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포럼순서와 발표 토론자는 다음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조>

인 사 말 : 이완식(2·28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공동의장)	축 사 : 조해녕(대구광역시장)
기조연설 : 정정길(울산대학교 총장)	대구·경북지역의 수구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대구정치발전방향)
사 회 : 박영철(2·28 사무총장)	좌 장 : 이해두 교수(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
모듬토론	
김석수 교수(경북대 철학)	개방과 혁신으로 거듭나야 할 대구·경북지역
김일수 박사(영남대 역사)	대구·경북지역 수구논쟁에 대한 역사적 접근
김희곤 교수(안동대 한국사)	대구·경북의 보수성향이 왜 문제인가?
이영환 박사(한국사회과학연구원장)	수구세력과 중도 보수세력을 혼동해선 안 돼
이홍우 교수(경북대 경영)	대구가 과연 수구 보수 집단인가?
홍덕률 교수(대구대 사회)	대구·경북의 성찰을 위한 제언



▲ 제6차 2·28포럼에 참석한 발표자, 좌로부터 홍덕률 교수, 이영환 박사, 김석수 교수, 정정길 총장, 이해두 교수, 김일수 박사, 이홍우 교수



▲ 제6차 2·28포럼에 2·28회원, 시민, 학생 350여명이 참석



## 2·28 산악회 창립

1. 취 지 : 의롭고 용기있는 2·28대구민주운동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2·28 회원들의 단합과 심신을 단련하여 지역공익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일시 및 장소 : 매월 3째 월요일(시간, 장소 별도)
3. 자 격 : 2·28산악회에 가입한 회원
4. 회 비 : 년 100,000원(월 1만원)
5. 입금계좌 : 대구은행 018-05-002526-6 (사) 2·28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산악회)
6. 연 락 처 : 사무처 943-0228, 홍무 김태자 011-815-2799, 홍무 박정근 018-287-8863

山神祭(登山)	順序
維檀君紀元四千三百三十七年正月十九日 (維歲次 癸未十二月庚午朔二十八日丁酉) 幼學 ○○○ 敬昭告于 后土之神 惟茲八公 東國名山 莫厚者地 莫靈者神 降祥下瑞 無處不鎮 非神奚依 非人曷敬 神其保佑 俾無后艱 謹以清酌 脯果 祗薦于神 尚 鑒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焚香·降神(제주)</li> <li>• 參神(전회원)</li> <li>• 初獻(讚祝)(제주)</li> <li>• 亞獻(제주)</li> <li>• 終獻(제주)</li> <li>• 辭神(전회원)</li> <li>• 飲(전회원)</li> </ul>

### \* 해설

유세차모년모월모일

유학 ○○○는 감히 신령님께 밝혀 고합니다.

산신에하여 생각해보니, 팔공산은 동국의 이름난 산입니다.

땅보다 더 두터운 것은 없고, 신보다 더 신령스러운 것은 없으며, 상(祥)스러움을 내려 주시고, 서기(璣軌)를 내려주시면 모든 것이 진람되지 않음이 없습니다.

신이 아니면 어찌 의지하겠으며, 사람이 아니면 어찌 공경하오리오, 신령님께옵서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삼가 맑은 술과 안주를 올리오니 흥향(歡響)하시옵소서.

<2·28산악회 홍무 박정근 제공>

## 2·28대구학생민주의거 기념탑터 구조물 설치 계획

1. 취 지 : 1960년 2월28일 대구시민정신의 표출이었던 2·28대구학생 민주의거를 기념하기 위하여 매일신문사 주관으로 1961년 4월 10일 건립된 "2·28기념탑"(1961. 4. 10 착공, 1962. 4. 19 준공)이 1990년 2월 28일, 두류공원으로 확장 이전하게 됨에 따라 당초 건립된 장소에 기념탑표시구조물을 설치, 최초 2·28기념탑의 설립지임을 알림으로써 대구시민들에게 의롭고 용기 있는 2·28대구학생의거의 역사성을 인식시키고자함.
2. 설치장소 :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타리 서남쪽 교통섬
3. 설치규모 : 60cm/60cm정도 크기의 검정대리석, 돌출 경사형으로 새김
4. 설치방법 : 교통섬 바닥에 보행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전문시공사에 의뢰함
5. 설치완료 : 2004년 2월 20일
6. 제 약 식 : 2004년 2월 28일 (2·28 제44주년 기념일) 14:00 명덕R 현장.
7. 주 관 : (사) 2·28 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8. 후 원 : 매일신문사
9. 예 산 : 3,000,000원(매일신문사 2,000,000원, 2·28사업회 1,000,000원)

## 2·28기념탑터 모형도

### 2·28 대구 학생민주 의거 기념탑비



이곳 명덕로타리 중심지에 1961년,  
「2·28대구학생민주의거」를 기념하는 탑을 건립하였다가  
1990년 2월 28일 두류공원으로 옮겼다.

사단법인 2·28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www.228.or.kr](http://www.228.or.kr)

- 2003. 10. 20 김정길 부의장(매일신문사장) 대구예술인상 특별공로상 수상
- 10. 29 최만기 이사(산학경영기술연구원장) 162차 월례 세미나 개최
- 10. 31 2003 대구사랑운동 실적 보고
- 11. 6 최만기 이사(산학경영기술연구원장) 2003 대구경북지역 발전심포지엄 개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혁신 시스템의 구축)
- 11. 10 이완식 공동의장 제6차 2·28 민주포럼 개최(대구·경북 수구논쟁 어떻게 풀 것인가)
- 11. 10 2·28 햇불 12호 편집위원회(위원장 박재건) 개최
- 11. 10 2·28 산악회 창립회의(총무위원회)
- 11. 11 MBC 라디오 2·28민주기념공원 조성사업 인터뷰(박명철 사무총장)
- 11. 17 2·28 산악회 등산(김명환 회장 외 15명)
- 11. 17 조해녕 2·28공동의장(대구광역시장) 순국선열의 날 신임동 선열공원 참석
- 11. 26 CBS 라디오 2·28민주기념공원 조성 인터뷰(박명철 사무총장)
- 12. 2 이완식 공동의장 KBS 대구총국 출연 대담(공원 조성 사업)



▶2003. 12. 2 오후 7기 30분 이완식 2·28공동의장이 KBS대구총국 화요저녁프로그램에 출연, 대구 공평동에 조성되고 있는 공평명칭에 대하여 토론



▶2003. 12. 15 2·28 산악회에서는 2003년 도를 보내면서 12월 앞산 등산을 하고 회원 상호간의 우의를 다졌다.

- 12. 3 박수권 이사, 국악관현악과 동부민요의 밤 공연(대구문화예술회관 대극장)
- 12. 9 김형기 이사(경북대 교수)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 12. 12 최만기 이사(산학경영기술연구원장) 164차 월례 세미나 개최(금융정책방향)
- 12. 12 김준곤 변호사 생활법률연계소식 축전
- 12. 15 제2차 2·28 산악회 등산(앞산)
- 12. 16 김형기 이사(지방분권 국민운동대표자회의 의장) 신행점수도 건설 추진현황 대구·경북 지역 공청회 개최
- 12. 17 김극년 대구은행장(2·28 고문) 한국 SOS 어린이마을 방문 성금 기탁
- 12. 18 김정길 부의장(매일신문부사장) TBC 자랑스런 대경인 대상 수상
- 12. 19 박명철 사무총장(대구·경북 지방분권운동 상임위원)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안내 재정 촉구 1,000만 지방민 선언 기자회견

◆ 축하드립니다

- 2003. 10. 11 정태일 이사 자녀결혼
- 10. 11 한수남 이사 장남 결혼
- 10. 11 김태자 효성가정의학과 병원 거원
- 11. 16 김익한 이사 장남 결혼
- 11. 20 배기동 이사 삼성디지털프라자 두류점 개업

- 11. 30 김수길 이사 장녀 결혼
- 12. 15 한수남 이사 대구일보 상무이사 취임

◆ 참가 조의를 표합니다

- 2003. 11 17 천수일 이사 모친상



기념

# 2·28대구민주운동 제44주년



**대구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이사장 김동석, 부이사장 이완식, 박철환, 전무이사 이강석  
704-830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895-7(대구화물터미널 502호)  
☎(053)588-9331 FAX(053)588-9330 E-mail : teagulks@hanmail.net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 1년 365일

오직 지역만 생각합니다.



꿈과 풍요로움을 지역과 함께 해 온 대구은행은  
한결같은 마음과 변함없는 정성으로  
새해에도 지역만 생각하는 은행이 되겠습니다.